

충남 소상공인 실태파악 및 대응방향

- ※ 코로나19 초기 소상공인들의 대출 급증, 이후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상환일 도래에 따른 위기 상황 우려
- ※ 정부의 정책으로 상환이 유예되었으나 상환능력이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정부 및 충남의 소상공인 정책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자 함

2022. 6. 21

[목 차]

- ① 소상공인 대출실태와 환경변화_1
- ② 충남 소상공인 현황분석_4
 - 1. 일반현황_4
 - 2. 도내 자영업자 현황과 소득 및 부채의 변화_13
 - 3. 도내 소상공인 추가 대출 실태조사_28
 - 4. 요약 및 시사점_30
- ③ 정부 및 충남 소상공인 정책 검토_34
- ④ 종합 및 시사점_39
- ⑤ 정책적 방향(안)_41
 - ※ 부록자료

< 요약 >

≫≫ 소상공인 대출실태와 환경변화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 급증, 정부 정책으로 상환유예
 - 4차 상환유예 조치로 9월 말까지 연장, 이후 일시적 상환 충격 우려
- 코로나19 펜데믹,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소비패턴 변화
 - 엔데믹 이후 해방감에 따른 ‘회복소비’가 펜데믹 시기의 ‘보복소비’를 넘어서는 경향, 소비 품목에 대한 급변은 또 하나의 변수
 - 변화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고령화/저출산, 1인가구 증가, 과학기술발전 등으로 소비구조 변화



≫≫ 충남 소상공인 현황분석

- 일반현황
 - 충남은 약 10.4만 개의 사업장 중 소상공인이 8.4만 개로 약 80.1% 비중
 - 전반적 흐름은 코로나19로 정체하다가 지난해 증가세 시현, 이후 다시 정체
 -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문화, 관광 등 여가 관련 업종은 더딘 회복, 반면 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음식점과 주점업 등은 빠른 회복세 시현
 - 고용회복 또한 진행 중이나 예술 직종은 위축 지속, 더딘 경기회복은 근로조건 악화와 퇴사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임
- 도내 자영업자 현황과 소득 및 부채 변화(KCB, BC카드 data 분석 결과)
 - 전체 소득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약 20.9%로 전국 평균 16.0%보다 높은 수준
 - 폐업은 코로나19 초기 증가한 이후 안정, 휴업은 지속적 증가, 소규모 사업장 일수록 폐업보다 휴업을 선택

- 코로나19 이후 개인사업자 1인당 평균소득 증가세 둔화, 이후 정체, 저소득 개인사업자 비중은 감소
- 대출보유자 증가, 카드론 등 소액 대출이 증가, 장·단기연체자 소폭 증가, 70대 이상의 부채위험군 관리 필요

☐ 도내 소상공인 추가 대출 실태조사 결과(충남패널조사 부가조사 결과)

- 코로나19 이후 추가 대출은 약 37.6% 수준, 추가 대출금의 대부분은 임차료로 지급, 현상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
- 응답자 중 약 54.3%가 상환과정에서 부침을 예상

☐ 시사점

- 경기회복 속도와 성장성을 고려한 세부 산업별 소상공인 지원 필요
- 장기적으로 다변화하고 있는 소비행태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필요
-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활력 지원, 최근 증가하는 단기부채에 대한 관리 필요

≫≫ 정부 및 충남 소상공인 정책검토

☐ 문재인 정부 vs. 윤석열 정부

-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강화’를 선정하여 추진,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제시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 소상공인에 대한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관련 정책 근거를 마련
-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과 연계한 충남도 소상공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2018년 기 수립된 계획에 대한 update 방안도 검토 필요

≫≫ 정책적 방향(안)

☐ 과제1(단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정상화

- 실태조사,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인 대응 필요

☐ 과제2(단기) 정부 상환유예 정책종료 후 부채상환에 따른 일시적 충격 완화

- 부채의 종류와 상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 과제3(중장기) 소상공인 종합 발전방안 및 정책,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정부계획과 정합성 유지, 충남의 특성에 맞는 전략 수립 중요

① 소상공인 대출실태와 환경변화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 큰 폭의 상승세

○ 코로나19가 시작과 함께 영향이 크게 나타난 '20년 4월~5월 시점에 대출 급증

- '21년 2/4분기말 현재 858.4조원, 전년동기대비 13.4% 증가¹⁾

* '20. 1/4분기 +15.1조원, 2/4분기 +55.2, 3/4분기 +22.3, 4/4분기 +26.1

* '21. 1/4분기 +28.3, 2/4분기 +26.3

- 업종별로는 대면서비스 업종인 도소매업과 여가서비스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임

* '21년 2/4분기 기준 : 도소매업 13.7%, 여가서비스업 19.7%

- 금융업권별로는 비은행금융기관, 금리 수준별로는 고금리 대출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1년 2/4분기 기준 : 은행 10.7%, 비은행 19.9%, 고금리 대출 17.6%

⇒ 일반적으로 대출 상황이 2년 후부터 시작됨을 고려할 때, 대출이 급증한 '20년 2/4분기의 상황은 '22년 2/4분기 이후

⇒ **코로나19의 지속과 더딘 회복을 고려할 때 상황 불가나 연체 우려**

□ 정부 정책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추진

○ 정부는 '20년 4월 이후 코로나19 위기 장기화로 3차례 상환유예 조치 시행

- (최초) '20년 4.1~9.30. → (1차연장)~'21.3.31. → (2차연장)~'21.9.30. → (3차연장)~'22.3.31.

- 2차, 3차 연장시에는 향후 조치 종료시 질서있는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연착륙 지원 및 내실화 방안을 마련, 시행

* 연착륙 지원 : 금융회사-차주간 컨설팅을 통해 장기, 분할 상환 지원 등

* 내실화 방안 : 거치기간(최대 1년) 부여, 상환기간 장기(3년→5년) 운영, 컨설팅 강화 등

○ 제55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3.3) 결과에 따르면, 1차례 더 연장 추진

-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모두 6개월 연장 추진**, 세부적인 연장 방안은 사전 분석, 점검을 통해 마련

1) 한국은행 금융안정상황(2021년 9월) 보도자료 발췌, 요약

⇒ 코로나19로 피해 자영업자들이 일시적 상환충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금융권 잠재부실의 최소화 도모

□ 코로나19 펜데믹,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소비패턴 변화

-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비대면화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IT기술 성장과 함께 온라인 쇼핑 증가, 소비패턴의 급변화가 나타남
 - 이커머스 시장은 네이버, 쿠팡, G마켓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 중이며, 코로나 19에 따른 온라인 소비에 익숙해진 상황임
 - 엔데믹에 따른 현상으로 오프라인 소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서 온라인 소비의 성장이 주춤, 그러나 모든 연령대에서 이커머스 경험이 축적된 상황으로 온라인 소비 증가라는 소비패턴 변화는 이어질 것임
 - 최근 엔데믹 이후 해방감에 따른 '회복소비'가 펜데믹 시기의 '보복소비'를 넘어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소비 품목에 대한 급변은 또 하나의 변수
 - (G마켓) 패션, 뷰티, 취미, 레저, 여행 등 야외활동 관련 판매 급증
 - (마켓컬리) 캠핑/스포츠 용품, 선케어 제품, 여행가방 판매 급증, 반면 마스크, 홈베이킹 관련 제품 및 밀키트 감소세
 - 집콕 패션 관련 상품 판매 저조, 고객 방문을 유도하는 매장으로의 변화 시작
 - (이마트) 상품 판매를 위한 진열 공간을 고객 관점에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정보 전달의 장으로 변화
 - (홈플러스) 캠핑 나들이 프로모션 전개, 문화센터 체험형 콘텐츠 강화 등
 - 급변하는 소비 패턴에 따라 기업들의 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 재고 소진을 위한 할인 판매 등 시작
 - 소비 패턴의 빠른 변화로 소매업체의 재고부담 증가
 - 상품에서 서비스로의 소비 전환 시작, 소비 양극화 우려 등
- ⇒ 기존의 소비행태에 기반을 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 변화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 상대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연령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 별도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고연령층의 경우 비대면서비스의 강화보다는 대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 검토도 중요

□ 거시적 측면의 소상공인 환경변화 : 고령화/저출산, 1인가구, 기술발전

- 고령화 인구 증가와 저출산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구 구조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소비구조는 변화는 불가피
 -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생산연령 인구감소는 결국 소상공인 분야의 소비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세대가 1인 가구와 MZ세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
 - 1인 가구가 주요 소비세대로 부상하면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 급증,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영 환경에도 영향력이 증가
 - 10대 후반 ~ 30대 청년층으로 구성된 MZ세대의 소비 급증, 이들의 소비트렌드 변화는 소상공인에게 기회이자 위협의 요인으로 작용
-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는 경제, 사회, 문화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응이 중요
 - 스마트폰 사용증가, 5G 시대 본격화, 온라인 소비 증가 등 과학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중심 소상공인의 변화를 요구



② 충남 소상공인 현황분석

1. 일반현황

□ 전국 시도별 소상공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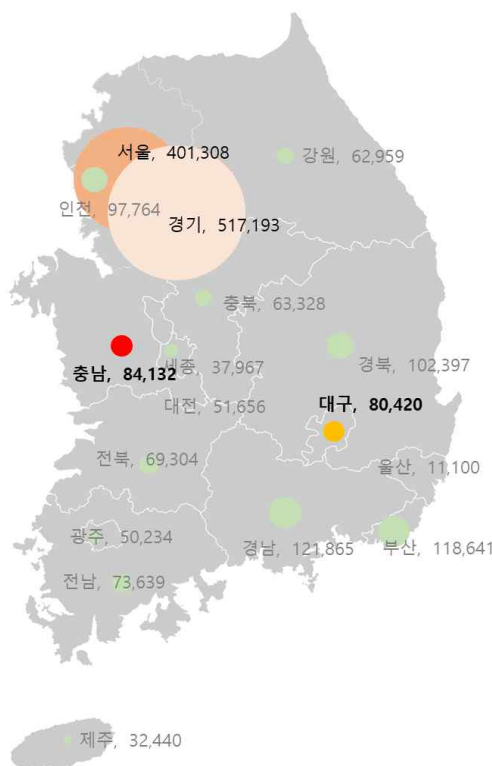
○ 경기와 서울에 집중, **충남은 전국에서 7위 규모**

-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 중 약 80.2%가 소상공인으로 분류
- 충남은 약 **10.4만 개의 사업장 중 소상공인이 8.4만 개로 약 80.1%**로 전국과 유사한 비중을 차지
- 전국 평균보다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시도는 제주·강원·전북·전남 등으로 전반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낮고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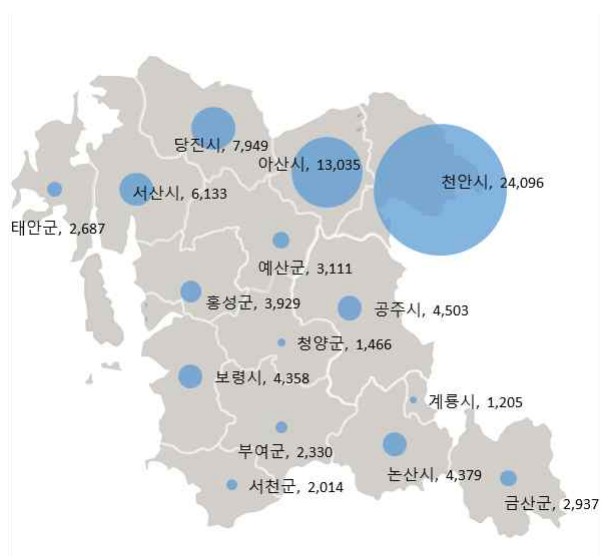
○ 도내에서는 인구나 산업이 밀집한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북부권에 집중

- 전체 사업장 규모면에서는 **북부권에 집중**
- 시군별 비중을 보면, 청양(83.7%)·금산(82.9%)·부여(82.1%) 등 산업 기반이 약한 지역과 태안(84.3%)·보령(83.7%) 등 관광산업 중심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 반면,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인 아산(77.9%)·천안(79.4%)은 도 전체 평균보다 소상공인 분포가 낮게 나타남

전국 시도별 분포(개)



충남 시군구 분포(개)



자료 : 고용보험, 비정형통계, 산업소분류, 규모별 통계(2022.3월 기준)

전국 시도별 / 충남 시군별 소상공인 사업장수 현황(개, %)

구분	전국 시도별				구분	충남 시군구별			
	전체	소상공인	비중	순위		전체	소상공인	분포	비중
전국	2,464,937	1,976,347	80.2	-	충남	104,986	84,132	100.0	80.1
서울	511,145	401,308	78.5	2	천안	30,351	24,096	28.6	79.4
부산	146,529	118,641	81.0	4	공주	5,571	4,503	5.4	80.8
대구	99,101	80,420	81.1	8	보령	5,246	4,358	5.2	83.1
인천	122,505	97,764	79.8	6	아산	16,743	13,035	15.5	77.9
광주	62,128	50,234	80.9	14	서산	7,665	6,133	7.3	80.0
대전	64,677	51,656	79.9	13	논산	5,435	4,379	5.2	80.6
울산	47,654	37,967	79.7	15	계룡	1,504	1,205	1.4	80.1
세종	14,168	11,100	78.3	17	당진	9,926	7,949	9.4	80.1
경기	643,857	517,193	80.3	1	금산	3,542	2,937	3.5	82.9
강원	76,886	62,959	81.9	12	부여	2,837	2,330	2.8	82.1
충북	79,982	63,328	79.2	11	서천	2,490	2,014	2.4	80.9
충남	104,986	84,132	80.1	7	청양	1,751	1,466	1.7	83.7
전북	85,070	69,304	81.5	10	홍성	4,823	3,929	4.7	81.5
전남	90,560	73,639	81.3	9	예산	3,914	3,111	3.7	79.5
경북	126,473	102,397	81.0	5	태안	3,188	2,687	3.2	84.3
경남	149,863	121,865	81.3	3					
제주	39,353	32,440	82.4	16					

자료 : 고용보험, 비정형통계, 사업장수 통계(2022.3월 기준)

주1 : 소상공인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기준(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과 매출액(3년평균 10억이하 또는 120억원 이하(제조업))으로 분류

구분	소상공인 규모	소상공인 3년 평균 매출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10억원 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그 외 업종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20억원 이하(제조업)

주2 : 본 분석에서는 고용보험 비정형통계에서 제공하는 기업규모별 통계를 활용함에 따라 세부산업별 상시근로자수만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을 정의, 기타 소상공인 통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3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로 1인(가족형태)이 운영하여 고용보험 의무대상 가입이 아닌 자영업자 추이는 별도로 분석함.

□ 도내 소상공인 현황과 변화

① 전반적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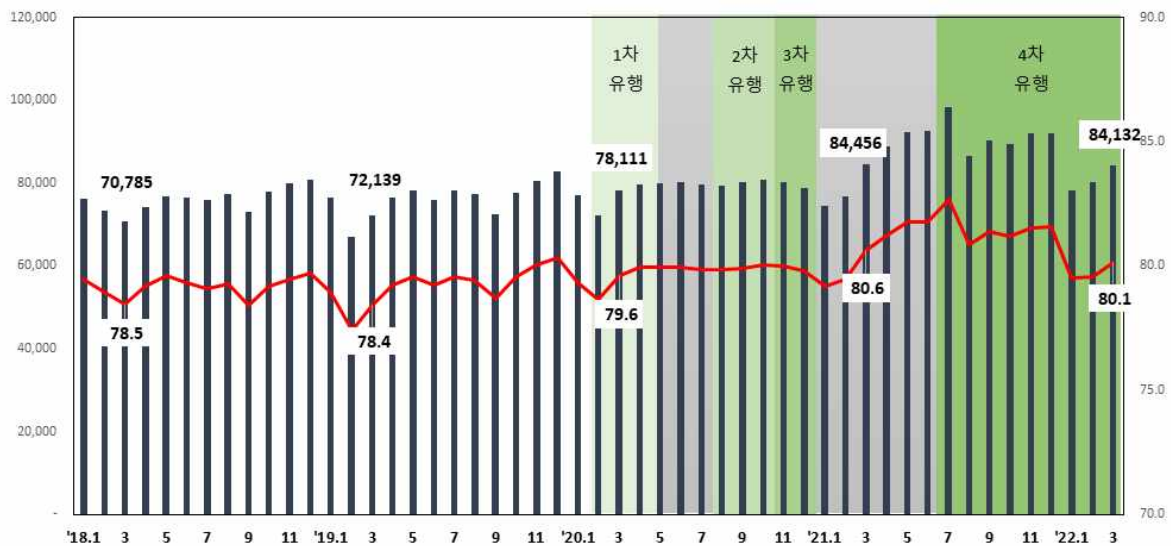
○ (정체) 코로나19 등으로 정체 → 지난해 증가세 시현 → 정체

- 금년 3월 도내 소상공인 사업장수는 8.4만개로 지난해 동기간과 유사한 수준
- 코로나19 이후 지난해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정체된 모습
- 다만, 소상공인 비중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소폭 증가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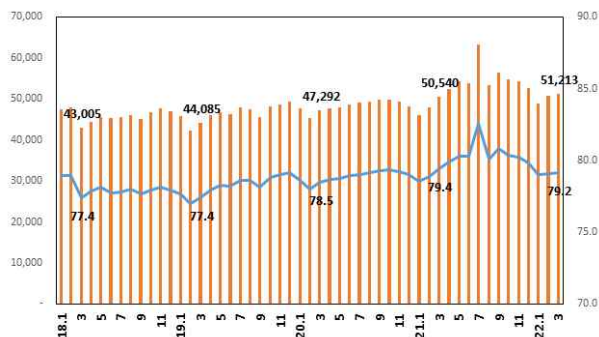
○ (권역별) 북부권은 증가, 서해안권·남부권·내륙권은 감소

- 전년동월대비 남부권(-3.8%), 내륙권(-2.6%), 서해안권(-1.8%) 각각 감소한 반면, 북부권은 1.3% 소폭 증가
- 관광 중심지인 서해안권은 성수기인 여름에도 코로나19로 위축, 이후 소폭 회복하는 모습이나 코로나19 감염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재위축
- 내륙권은 공주의 회복이 눈에 띄나 부여·청양 등에서 감소세를 이어가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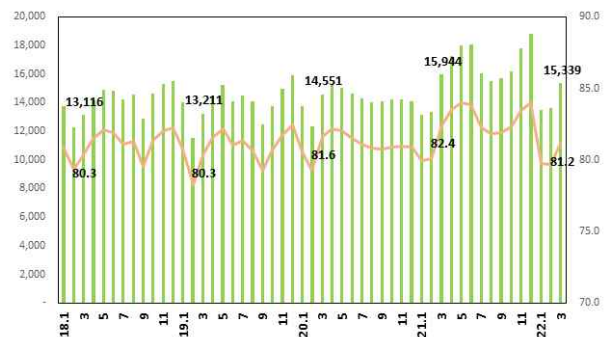
도내 소상공인 사업장수 변화 추이(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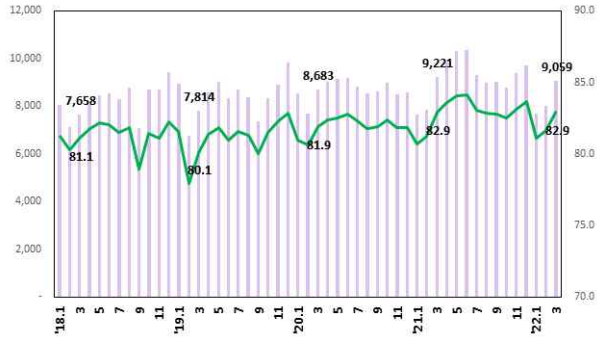
북부권(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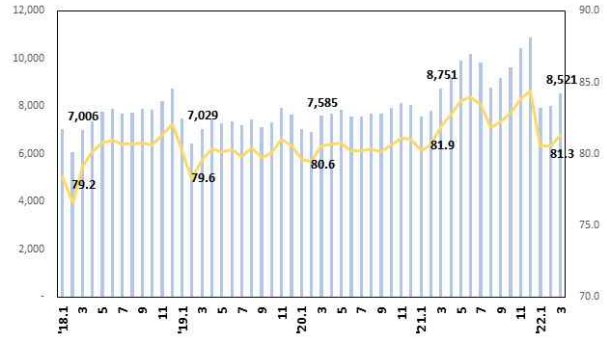
남부권(개, 비중·%)



서해안권(개, 비중.%)



내륙권(개, 비중.%)



자료 : 고용보험, 비정형통계, 사업장수 통계(2022.3월 기준)

주 : 권역별 분류는 천안·아산·서산·당진이 속한 북부권과 서해안권(보령·서천·태안), 내륙권(공주·부여·청양·홍성·예산), 남부권(논산·계룡·금산)으로 분류함

② 코로나19 전·후 세부 산업별 경기 변동

○ (더딘 회복, 영세화 진행) 소상공인 전반은 경기하강 국면 위치 **영세화 진행 중**

- 코로나19 이전 상승국면 → 둔화·하강 국면에 위치, 서비스업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제조업보다 코로나19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더딘 회복**
- 또한, 사업장수는 증가하였으나 사업장당 평균 고용인원이 감소하며 영세화 진행

코로나19 전·후 유행시기별 소상공인 경기변동 추이



자료: 고용보험, 비정형통계, 사업장수

주 : 원계열에서 계절 및 불규칙, 추세변동요인을 제거, 순환변동요인(순환변동치)과 불규칙조정계열의 전월차 자료를 이용하여 각 시기별 경기순환국면에서의 위치를 파악

○ 스포츠·문화·여가 부문은 더딘 회복, 음식점·숙박 등은 빠르게 회복

- (유형 1) 성장 → 규모화 → 영세화, 소상공인 전반,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유형 2) 성장 → 영세화 → 영세화,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유형 3) 성장 → 영세화 → 성장(회복), 음식점 및 주점업
- (유형 4) 영세화 → 영세화 → 성장(회복), 농업, 숙박업
- (유형 5) 영세화·쇠퇴 → 성장 → 성장,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관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수혜 또는 성장이 가속화된 산업

* 일회용품 소비 증가, 동영상 강의, 비대면 업종으로의 전환

-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문화, 관광 등 여가 관련 업종은 점진적 수요 회복으로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음식점과 주점업 등은 빠른 회복세 시현

코로나19 전후 세부산업의 유형별 구분

구분	코로나19 이전 (18년~19년)		코로나19 진행 (19년~20년)		코로나19 이후 (20년~21년)		세부산업
	사업장수	평균 고용인원	사업장수	평균 고용인원	사업장수	평균 고용인원	
유형1	↑	↑	↓	↑	↑	↓	소상공인 전반 종합건설업, 스포츠·오락관련 서비스업
유형2	↑	↑	↑	↓	↑	↓	정보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사업시 설 관리·조경 서비스업,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유형3	↑	↑	↑	↓	↑	↑	식료품/의료·정밀·광학·시계 제조업, 산업용 기계·장비수리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음식점·주점업, 부동산업, 연 구개발업
유형4	↑	↓	↑	↓	↑	↑	농업, 비금속광물 광업,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숙 박업, 임대업(부동산제외)
유형5	↑,↓	↓	↑	↑	↑	↑	고무·플라스틱제품/목재·나무제품/금속 가공제조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 물 제작 및 배급업, 컴퓨터 프로그래 밍·시스템 통합 관리업

자료 : 고용보험, 비정형통계, 사업장수 및 피보험자수 통계(각 연도별 12월, 산업중분류 기준)

주1 : 코로나19 이전(2018년~2019년 증감률), 코로나19 진행(2019년~2020년 증감률), 코로나19 이후(2020년~2021년 증감률)

주2 : 자세한 산업별 분류 현황은 부록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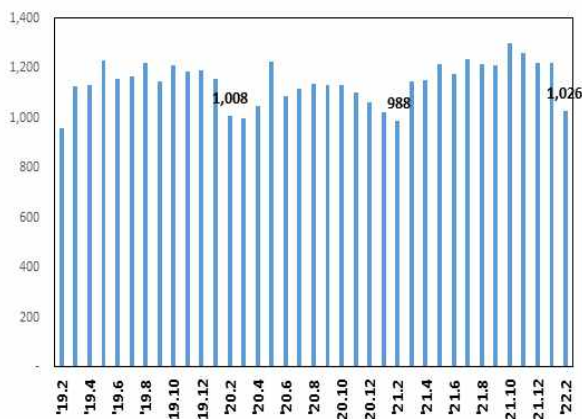
- 단기 소비트렌드의 급격한 변화, 전자상거래 등 일부 업종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
 - '22.2월 총신용카드 사용액 전년동월대비 3.9% 증가,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 * 글로벌 공급망 및 국제 정세 변화 등 대외적 불확실성 증가는 소비를 위한 비용 증가를 견인
 -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소비 위축 업종이었던 음식점과 학원 등에 대한 소비는 회복되었으나 스포츠 등 여가관련과 대형마트 업종은 회복 지연
 - 더불어 코로나19 수혜업종으로 등장한 자동차 소비 수요 둔화, 편의점 수요는 증가한 상태
 - 상점가와 전통시장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확장된 전자상거래/통신판매는 성장세 둔화, 여행업 등은 실질적으로 증가한 여행 수요에 대응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현상 뚜렷
 - * 전국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소비액 증가율('22.2월, 전년동월비) : 전국 17.6%, 충남 -71.0%
 - * 전국 여행 소비액 증가율('22.2월, 전년동월비) : 전국 23.7%, 충남 -8.5%

< 최근 전국적인 소비트렌드의 변화 특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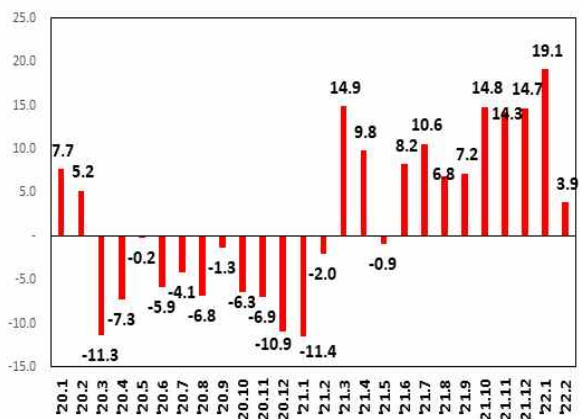
- ① 소비를 위한 비용 증가
- ② 단기 온라인플랫폼의 위축 → 장기적 성장요인 여전히 존재
 - 최근 온라인플랫폼 입점 양도 증가, 배달오토바이 매물 급증 등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특수
 - 다만, 일시적인 수요 폭증에 의한 것으로 점차 대면 소비 증가세는 둔화될 것
 -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IT기반 소매업과 IT전문가 수요 성장세도 둔화 예상
- ③ 대면소비 증가

충남 신용카드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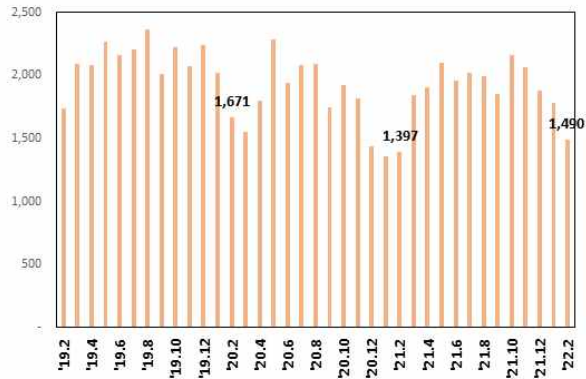
총사용금액(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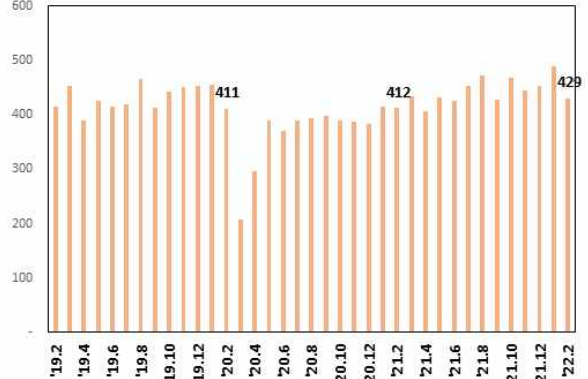
전년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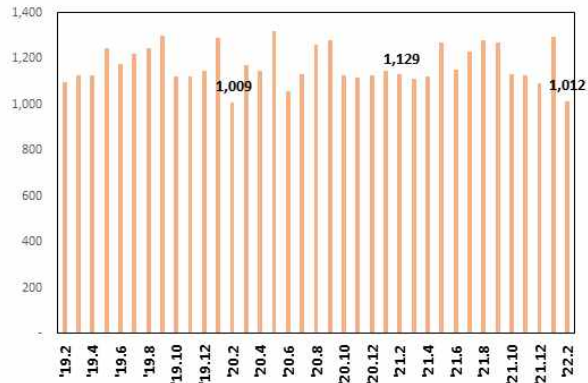
음식점(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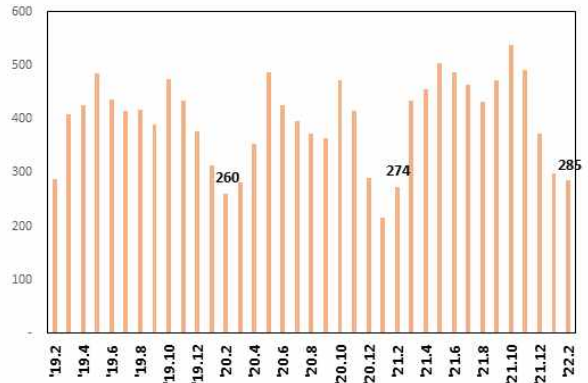
교육(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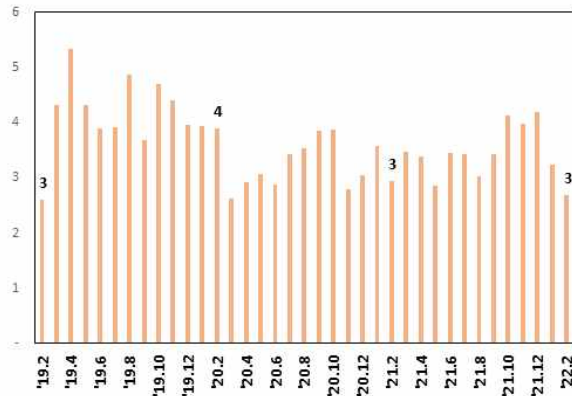
대형마트(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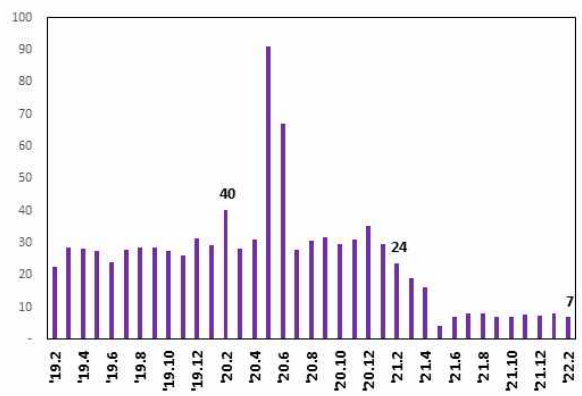
스포츠/오락/여가(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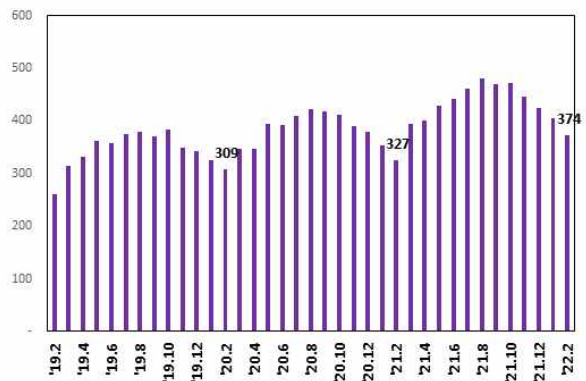
여행사/자동차임대(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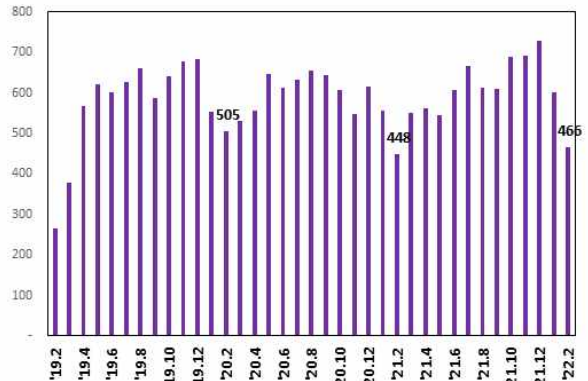
전자상거래/통신판매(억원)



편의점(억원)



자동차(억원)



자료 : 한국은행, 신용카드, 지역별 소비유형별 개인 신용카드(총사용액 기준)

③ 고용시장의 변화

○ 5-9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회복은 진행 중**, 회복세는 소폭 둔화

- 코로나19 초기(2020년 상반기) 현재 고용 인력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부족인원 감소
- 이후 고용수요 감소가 지속되며 부족률 일부 회복되었으나 지난해 말 회복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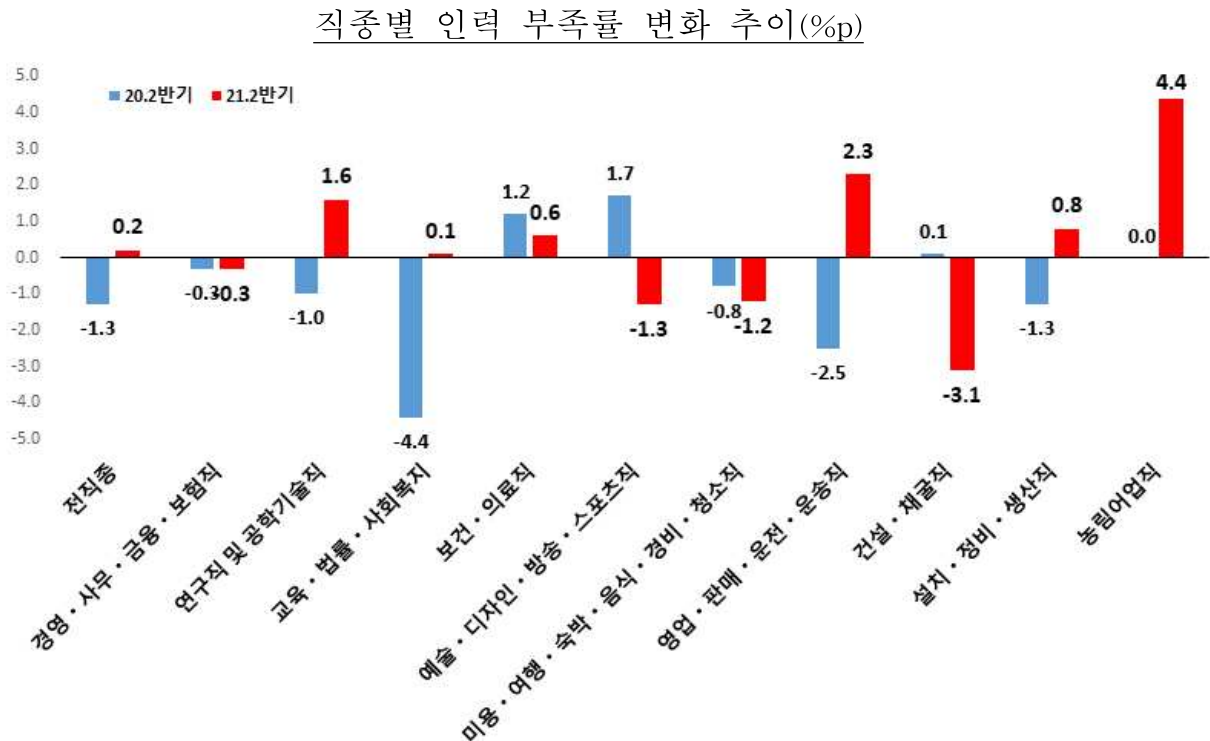
○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여행, **예술 직종에서 위축이 지속**

- 지난해 말까지도 해당 부문 직종에서 부족률은 마이너스를 기록
- 세부 직종으로 보면, 미용·예식 등 서비스직에서는 회복하는 모습이나 여행·오락 서비스직에서는 위축이 지속

* (주요 위축 지속 직종) 경영·행정사무직, 금융·보험직, 스포츠·레크레이션직,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등

* (주요 회복세 직종) 교육직, 법률직, 미용·예식 서비스직, 청소 및 개인서비스직, 영업·판매직, 운전·운송직, 농림어업직 등

○ 반면, 제조업 관련 직종은 단순노무직에서도 빠른 회복 시현, 플랫폼·배달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운송직에 대한 수요는 증가**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10차 산업분류기준

주1 : 소상공인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5-9인 미만 규모를 대상으로 분하였으며 부족률 = 부족인원/(부족인원+현원)*100

주2 : 부족률 추이는 각 시기별 부족률의 증감을 의미함

○ 더딘 경기회복은 근로조건 악화와 퇴사로 이어지는 모습

-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부문의 더딘 회복은 고용불안으로 귀결되는 모습

* 지난해 고용보험 상실자수는 전년대비 4.6% 증가

- (자진퇴사 → 경영상 → 근로조건 악화) 코로나19 이후 경영상 감원과 근로조건·임금 체불에 의한 퇴사가 증가

* 주된 퇴사사유 : 2019년 개인(자진퇴사) 사유(7.5%), 2020년에는 경영상 감원(15.2%), 2021년 계약만료(6.0%), 근로조건·임금체불에 의한 퇴사(16.9%) 각각 증가

고용보험 상실자의 사유별 변화(명, %)

상실사유	2018	2019		2020		2021	
	5인 미만	5인 미만	증감률	5인 미만	증감률	5인 미만	증감률
개인사정 자진퇴사	32,970	35,438	7.5	37,097	4.7	40,004	7.8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감원	7,398	7,770	5.0	8,948	15.2	8,551	-4.4
계약만료, 공사종료	7,799	6,564	-15.8	6,724	2.4	7,129	6.0
고용보험 비적용	287	255	-11.1	279	9.4	302	8.2
근로자의 귀책	653	705	8.0	733	4.0	711	-3.0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800	678	-15.3	723	6.6	845	16.9
이중고용	146	220	50.7	386	75.5	241	-37.6
정년	53	63	18.9	55	-12.7	84	52.7
폐업, 도산	2,634	2,829	7.4	2,875	1.6	2,515	-12.5
기타	177	161	-9.0	193	19.9	274	42.0
총합계	52,917	54,683	3.3	58,013	6.1	60,656	4.6

자료 : 고용보험, 비정형통계, 피보험자수, 상실자수(각 연도별 12월까지 누계)

주 : 소상공인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석함.

2. 도내 자영업자 현황과 소득 및 부채의 변화

□ 자영업자 현황

① 도내 자영업자²⁾ 현황과 분포

○ 전반적으로 소상공인 분포와 유사, **전국 자영업자 중 충남이 약 5.3%를 차지**

* 주요 시도별 비중 : 경기 24.2%, 서울 15.5%, 경남 7.4%, 경북 6.6%

- 금년 1분기 전년동분기대비 4.6% 증가한 36.7만 명

- 2018년 경기침체기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모습, 더불어 베이비부머세대 창업 등이 이어지며 자영업자 큰 폭 증가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증가세 둔화, 최근 전체 소득자 증가세를 상회

○ **전체 소득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약 20.9%**로 전국 평균 16.0% 높은 수준

- 전체 소득자 중 10명 중 2명, 임금근로자만을 포함할 경우 약 10명 중 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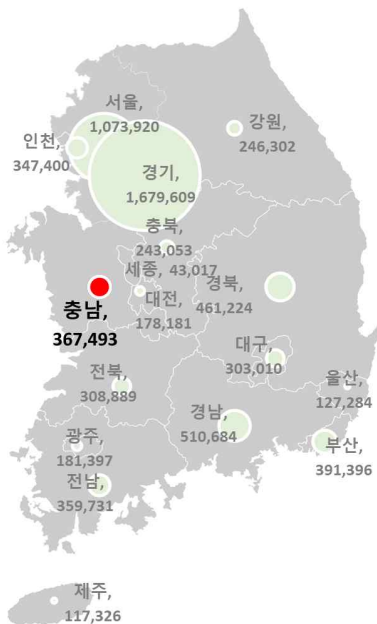
* 비중 추이(%) : 19.9('19.1Q) 20.0('20Q) 20.5('21Q) 20.9('22.1Q)

* 자영업자/(급여+자영업자) 비중 : 32.3('19.1Q) 32.2('20Q) 32.9('21Q) 33.5('22.1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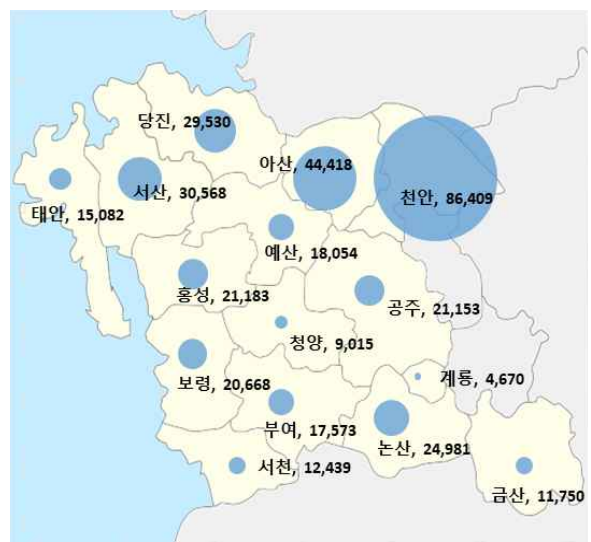
- 연령별로 보면, 10-20대와 60대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증가, 30대-50대 비중은 감소

- 코로나19 이후 연령별 상이한 흐름이 가속화, 코로나19 초기 40-50대 비중 감소에서 최근에는 30대 자영업자 비중도 감소하는 모습

전국 시도별 분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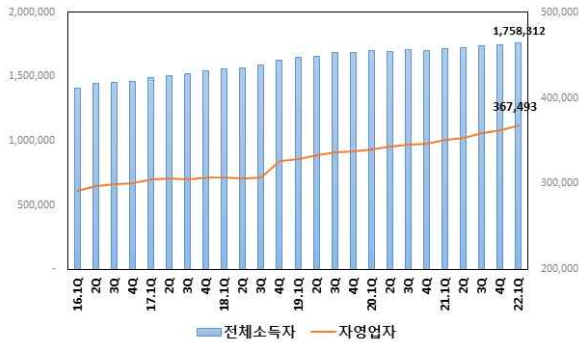


충남 시군구 분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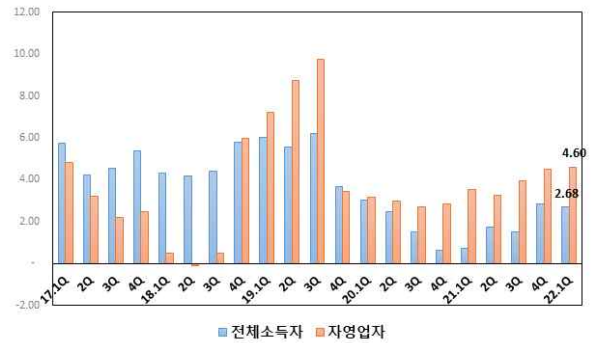


2) KCB 개인 정보 이력에 본인이 개인사업자라고 응답한 자,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했을 때(부록1) 대체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합한 규모와 유사

자영업자 추이(명)



전년동분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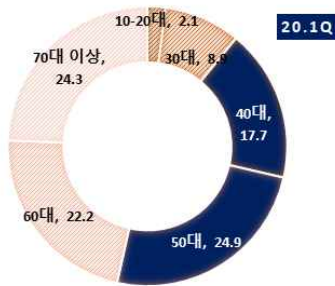


연령별 자영업자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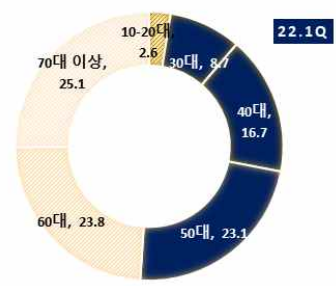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초기



현재



자료 : KCB 신용정보 자료(18세-104세 기준), 전국 시군구 단위 소득·소비·부채·인구통계 자료

<참조> 시도별 분포 현황 및 자영업자 비중(2022.1Q기준)

구분	자영업자 (A)	비중 (%)	급여소득자 (B)	기타소득자 (C)	전체소득자 (D)	비중(%) (A/A+B)*100	비중(%) (A/D)*100
합계	6,939,916	100.0	19,075,948	17,491,470	43,507,334	26.7	16.0
경기	1,679,609	24.2	5,203,477	4,494,483	11,377,569	24.4	14.8
서울	1,073,920	15.5	3,941,795	3,731,806	8,747,521	21.4	12.3
경남	510,684	7.4	1,160,484	1,012,546	2,683,714	30.6	19.0
경북	461,224	6.6	829,345	812,297	2,102,866	35.7	21.9
부산	391,396	5.6	1,225,773	1,154,673	2,771,842	24.2	14.1
충남	367,493	5.3	729,406	661,413	1,758,312	33.5	20.9
전남	359,731	5.2	522,190	541,487	1,423,408	40.8	25.3
인천	347,400	5.0	1,114,237	983,298	2,444,935	23.8	14.2
전북	308,889	4.5	558,133	568,093	1,435,115	35.6	21.5
대구	303,010	4.4	857,421	876,148	2,036,579	26.1	14.9
강원	246,302	3.5	471,789	487,163	1,205,254	34.3	20.4
충북	243,053	3.5	574,883	511,883	1,329,819	29.7	18.3
광주	181,397	2.6	533,242	488,724	1,203,363	25.4	15.1
대전	178,181	2.6	564,916	520,917	1,264,014	24.0	14.1
울산	127,284	1.8	448,910	342,707	918,901	22.1	13.9
제주	117,326	1.7	198,120	213,986	529,432	37.2	22.2
세종	43,017	0.6	141,827	89,846	274,690	23.3	15.7

자료 : KCB 신용정보 자료(18세-104세 기준)

주 : 자영업자란, 각각의 개인이 응답한 정보에 본인이 자영업자라고 응답한 수

② 창업과 휴·폐업 추이

○ 창업은 코로나19 발병 초기 잠시 주춤, 주로 연초와 연말 창업이 증가하던 것과 달리 코로나19 이후에는 유행시기에 따라 둔화와 성장을 반복

- 최근 창업률은 소폭의 감소세를 시현 중

- 코로나19 초기에는 매출규모 10억원 이상 사업장이 창업을 주도한 반면 최근에는 3억원 이하 사업장의 창업 비중 증가

* 3억원 이하 사업장의 신규 가맹 비중(%) 4.1('19년) 3.0('20년) 4.4('21년)

* 10억원 이상 사업장의 신규 가맹 비중(%) 95.1('19년) 96.1('20년) 94.6('21년)

- 또한 일반 창업보다 프랜차이즈 창업이 우세한 모습

* 전체 가맹점 대비 프랜차이즈 비중 : 9.0%('19.4) 9.2%('20.4) 9.4%('21.4) 9.7%('22.4)

○ 폐업은 코로나19 초기 증가한 이후 안정되는 모습이나 휴업은 지속적으로 증가

- 폐업률도 최근 4개월 연속 감소, 3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비중은 증가

* 3억원 이하 사업장의 가맹 해지 비중(%) 74.8('19년) 80.1('20년) 81.2('21년)

○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코로나19로 영향으로 폐업보다는 휴업을 선택한 경향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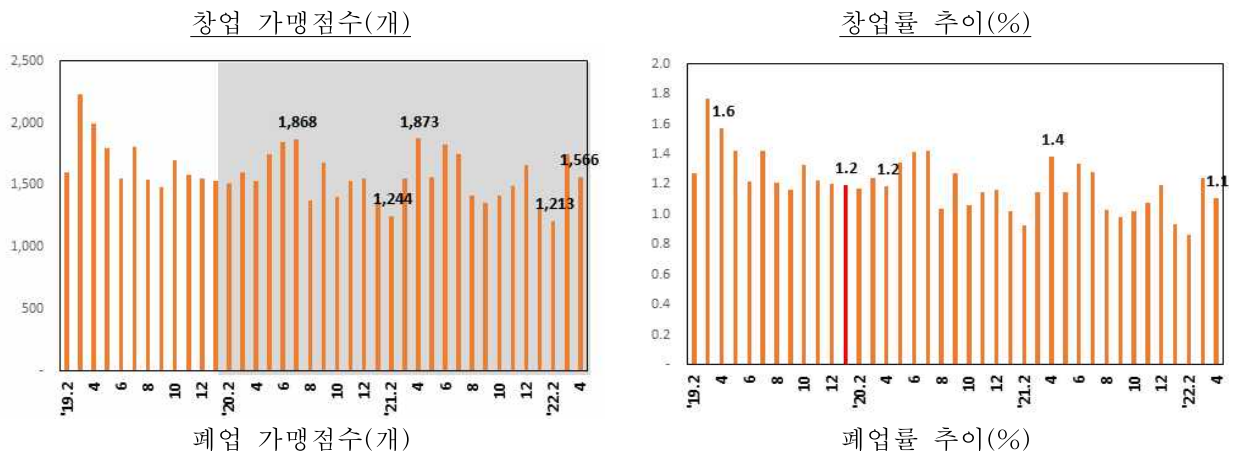
- 금년 4월 휴업률은 코로나19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휴업률 증가세는 소폭 둔화되며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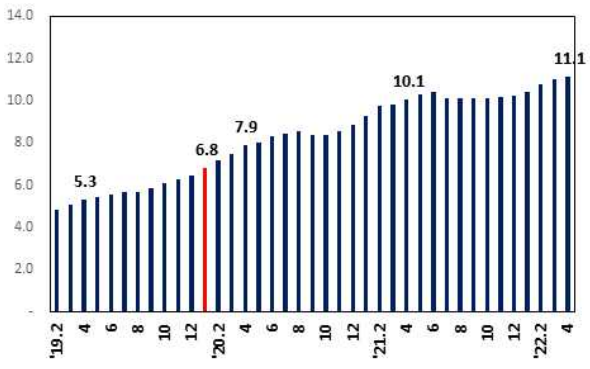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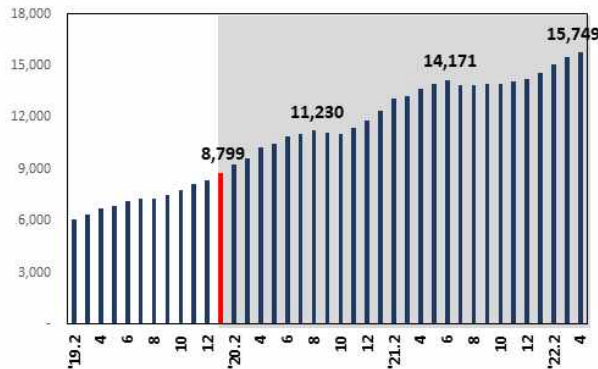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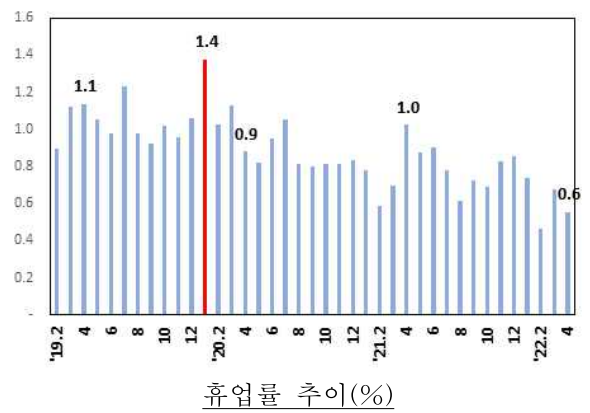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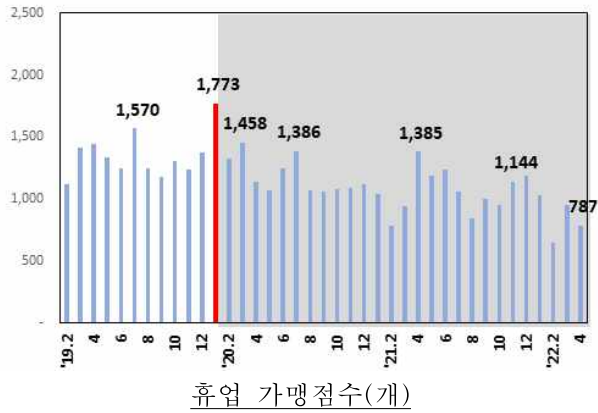
* 휴업률 증감(%p) : 2.82('20.8월)로 코로나19 이후 최고 증가폭 시현, 1.04('22.4월)로 증가폭 둔화

- 매출규모별로 보면, 휴업한 사업장 10개 중 약 7.9개는 3억원 이하로 이러한 현상은 최근까지도 지속

* 3억원 이하 사업장의 휴업 가맹점 비중(%) 77.0('19.12월) 78.1('20.12월) 79.2('21.12월) 80.1('22.4월)

창업과 휴·폐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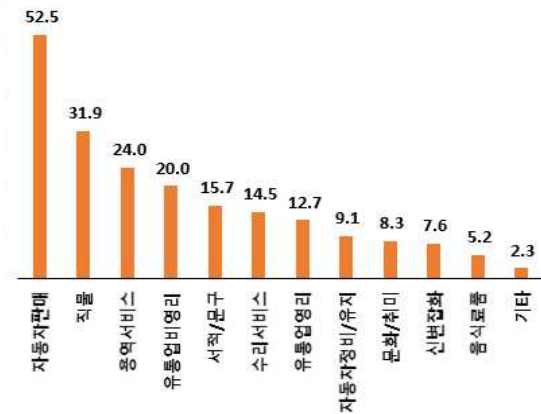


자료 : BC카드 가맹점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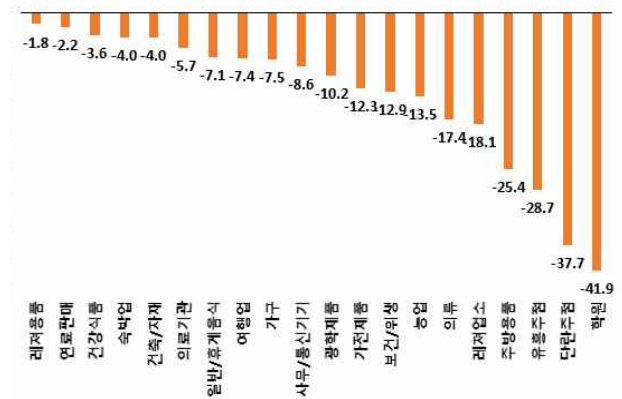
주 : 창업은 신규 가맹점, 휴업은 6개월 이상 실적 전무, 폐업은 가맹점 해지를 기준으로 함

코로나19 발병 이후 주요 창업과 휴·폐업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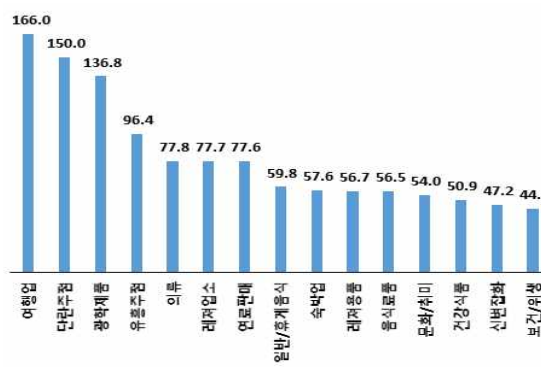
주요 창업 증가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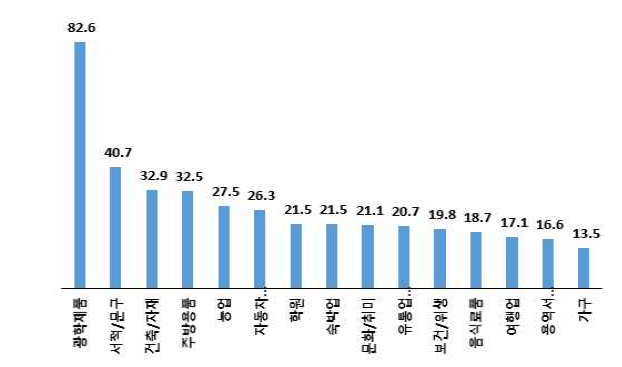
주요 창업 감소 업종



주요 휴업 증가 업종



주요 폐업 증가 업종



주 : 2020년 2월~12월 창·폐업 업종의 전년동기비, 휴업은 2020.12월 기준 전년동월비로 분류함

<참조> 도내 BC카드 가맹점수 추이(개, %)

	가맹점수	프랜 차이즈	신규 가맹점	휴업 가맹점	폐업 가맹점	비중(%)			
						프랜 차이즈	창업률	휴업률	폐업률
'19.1	124,714	11,248	1,698	5,409	3,347	9.0	1.4	4.3	2.7
2	125,193	11,310	1,597	6,045	1,118	9.0	1.3	4.8	0.9
3	126,014	11,354	2,232	6,385	1,411	9.0	1.8	5.1	1.1
4	126,564	11,425	1,991	6,715	1,441	9.0	1.6	5.3	1.1
5	127,033	11,474	1,803	6,875	1,334	9.0	1.4	5.4	1.1
6	127,339	11,538	1,550	7,112	1,244	9.1	1.2	5.6	1.0
7	127,582	11,533	1,813	7,248	1,570	9.0	1.4	5.7	1.2
8	127,879	11,578	1,545	7,297	1,248	9.1	1.2	5.7	1.0
9	128,188	11,609	1,488	7,522	1,179	9.1	1.2	5.9	0.9
10	128,584	11,630	1,704	7,809	1,308	9.0	1.3	6.1	1.0
11	128,926	11,688	1,580	8,115	1,238	9.1	1.2	6.3	1.0
12	129,109	11,727	1,554	8,369	1,371	9.1	1.2	6.5	1.1
'20.1	128,873	11,718	1,537	8,799	1,773	9.1	1.2	6.8	1.4
2	129,059	11,768	1,510	9,271	1,324	9.1	1.2	7.2	1.0
3	129,201	11,847	1,600	9,646	1,458	9.2	1.2	7.5	1.1
4	129,599	11,894	1,537	10,236	1,139	9.2	1.2	7.9	0.9
5	130,284	11,968	1,753	10,453	1,068	9.2	1.3	8.0	0.8
6	130,886	12,035	1,848	10,900	1,246	9.2	1.4	8.3	1.0
7	131,368	12,108	1,868	11,064	1,386	9.2	1.4	8.4	1.1
8	131,665	12,138	1,371	11,230	1,074	9.2	1.0	8.5	0.8
9	132,289	12,248	1,684	11,118	1,060	9.3	1.3	8.4	0.8
10	132,618	12,289	1,408	11,071	1,079	9.3	1.1	8.3	0.8
11	133,063	12,387	1,531	11,394	1,086	9.3	1.2	8.6	0.8
12	133,497	12,444	1,551	11,807	1,117	9.3	1.2	8.8	0.8
'21.1	133,819	12,494	1,367	12,383	1,045	9.3	1.0	9.3	0.8
2	134,275	12,585	1,244	13,061	788	9.4	0.9	9.7	0.6
3	134,887	12,666	1,551	13,260	939	9.4	1.1	9.8	0.7
4	135,375	12,749	1,873	13,645	1,385	9.4	1.4	10.1	1.0
5	135,744	12,814	1,559	13,967	1,190	9.4	1.1	10.3	0.9
6	136,336	12,898	1,827	14,171	1,235	9.5	1.3	10.4	0.9
7	137,023	13,017	1,752	13,875	1,065	9.5	1.3	10.1	0.8
8	137,597	13,107	1,419	13,900	845	9.5	1.0	10.1	0.6
9	137,955	13,158	1,356	13,944	998	9.5	1.0	10.1	0.7
10	138,412	13,225	1,411	13,959	954	9.6	1.0	10.1	0.7
11	138,758	13,304	1,490	14,107	1,144	9.6	1.1	10.2	0.8
12	139,224	13,364	1,659	14,226	1,193	9.6	1.2	10.2	0.9
'22.1	139,497	13,434	1,304	14,555	1,031	9.6	0.9	10.4	0.7
2	140,060	13,536	1,213	15,066	650	9.7	0.9	10.8	0.5
3	140,861	13,637	1,751	15,476	950	9.7	1.2	11.0	0.7
4	141,640	13,757	1,566	15,749	787	9.7	1.1	11.1	0.6

자료 : BC카드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휴폐업 자료

주 : 창업(휴·폐업)률은 신규(6개월 무실적·해지 가맹점수)*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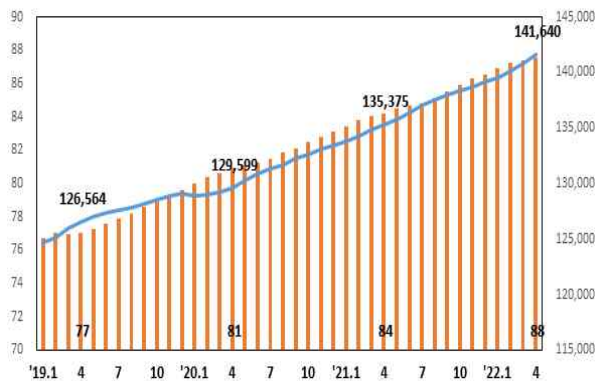
③ 도내 자영업자(사업장)³⁾ 생멸 추이

○ 도내 자영업자 평균 영업개월수는 약 88개월로 약 7년 3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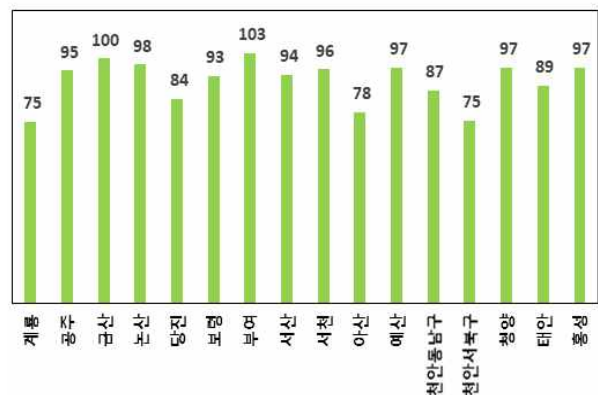
- 창업과 휴·폐업 등의 잦은 변동으로 평균 영업개월수 증가폭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축소
 - * 평균 영업개월수(전년동월 증감) 추이 : 3.9개월('20.4) 3.2개월('21.4) 3.4개월('22.4)
 - * 동기간 가맹점수 증가세(전년동월비) : 2.4%('20.4) 4.5%('21.4) 4.6%('22.4)
- 시군구별로 보면, 부여(103개월)가 가장 길고 금산(100개월), 논산(98개월), 예산·청양·홍성(97개월) 순
- 충남 전체 평균을 하회하는 시군구는 계룡·천안서북구(75개월), 아산(78개월) 등
- 평균 영업개월수는 상대적으로 일반 서비스업보다 기술 또는 자본집약적 업종에서 길게 나타난 반면, 트렌드에 민감하거나 최근 급증한 업종은 다소 짧은 것이 특징
 - * 자동차정비·기계공구·건축자재(기술직 또는 지식필요 업종), 주유소(자본투자)
 - * 편의점(최근 급증), 문화·취미/서양음식점(트렌드 중시)

시군 및 주요 업종의 평균 영업개월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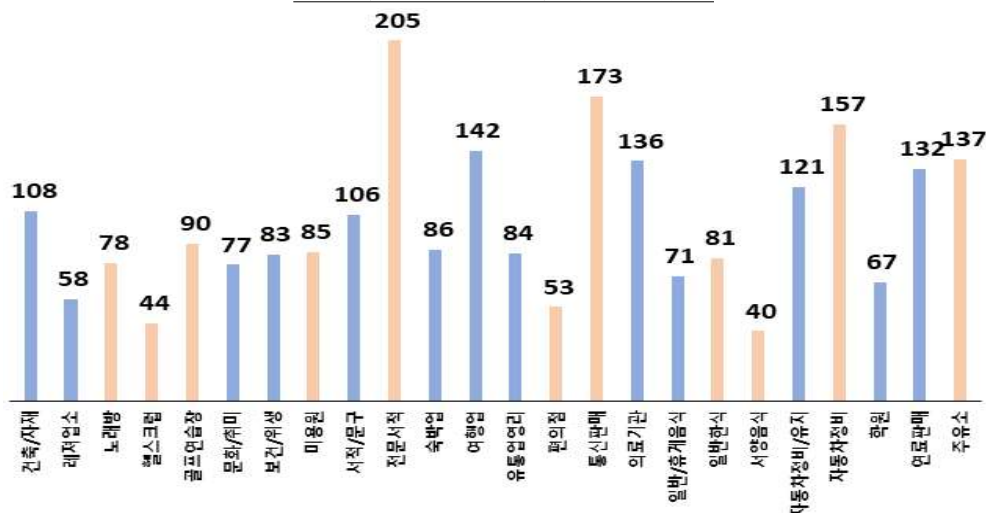
가맹점수 및 평균영업개월수(개, 개월)



시군별 평균영업개월수(개월)



주요 업종별 평균영업개월수(개월)



자료 : BC카드 가맹점 자료,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휴폐업 데이터(2022.4월 기준)

3) BC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분석함.

○ 가장 많이 분포하는 업력은 5년 이상, 약 2개 중 1개가 해당

- 코로나19 초기 1년 미만, 2년 이상-3년 미만 사업장 감소 시작 → 코로나19 초기 창업한 사업장이 1년 이상으로 접어든 2021년에 1년 이상 ~ 3년 미만 사업장으로 감소세 확대

* 주요 업력별 비중('22.4월 기준) : 5년 이상(52.2%), 1년 미만(12.3%) 1년~2년 미만(11.0%) 2년~3년 미만(9.1%) 3년~4년 미만(8.5%) 4년~5년 미만(7.0%) 순

- 트렌드에 민감한 서양음식점과 소규모로 운영되는 피부미용실, 필수과목이 아닌 예체능 학원 등이 해당, 주로 매출 3억 이하 또는 10억원 이상 사업장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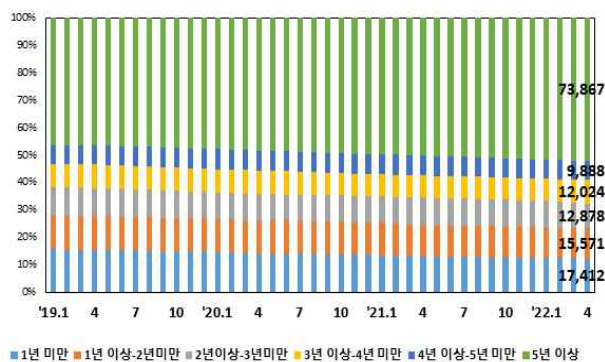
* 코로나19 초기에는 3억원 미만 사업장, 이후 10억원 이상 사업장이 주도

*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업력 축소를 보이는 업종 : 보건/위생(이미용실), 여행업, 일반/휴게음식, 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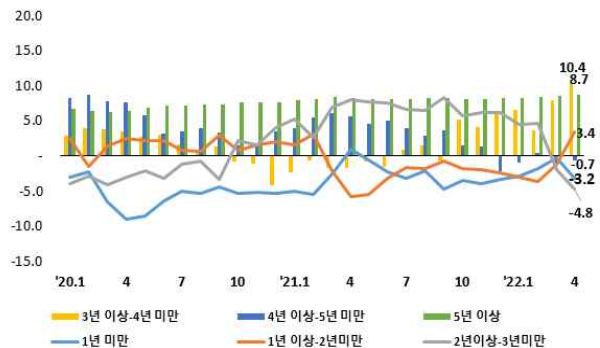
- 반면, 5년 이상 자리를 잡은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

업력별 가맹점수 추이 및 1년 미만 사업장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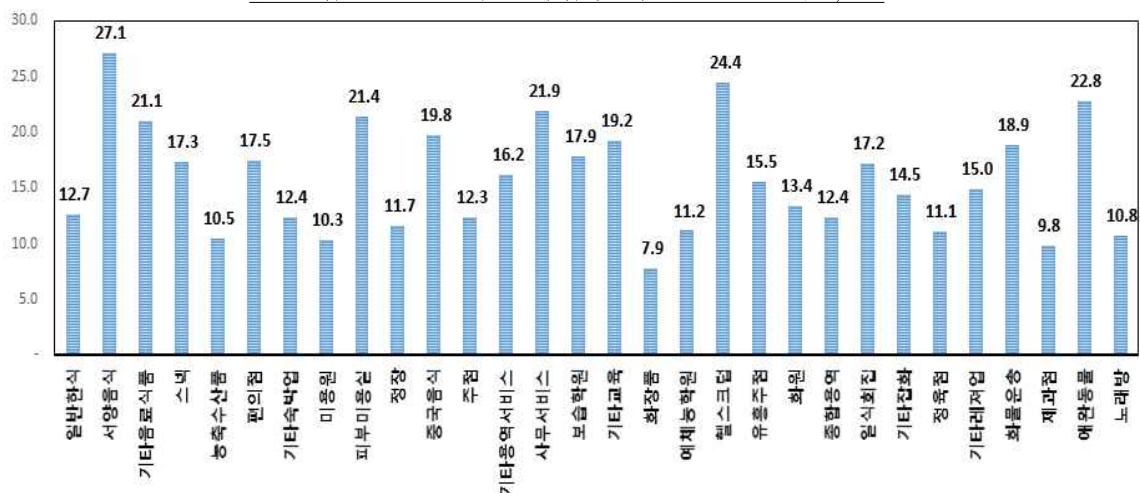
주요 업력별 가맹점수 추이(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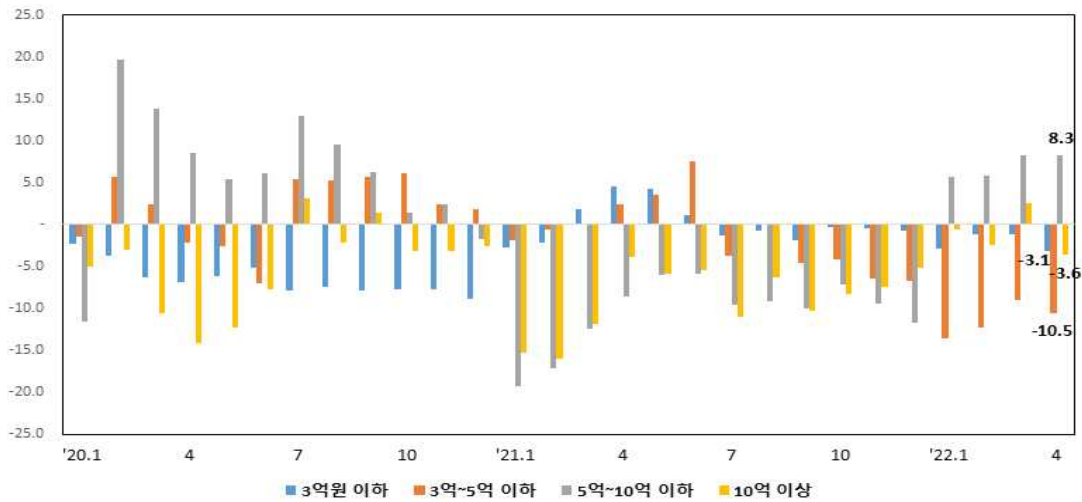
전년동기비(%)



주요 업종별 1년 미만 사업장 비중(2022.4월 기준, %)



매출규모별 1년 미만 사업장 변화(전년동기비·%)



자료 : BC카드 가맹점 자료,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유흥업 데이터

□ 개인사업자⁴⁾의 소득과 부채의 변화

① 소득의 변화

○ (규모) 금년 1분기 개인사업자 1인당 평균소득은 3,961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 증가

– 동기간 전체 소득자의 1인당 평균소득은 2,977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2% 증가

* 북부권은 충남 전체 평균소득을 상회, 그 외 계룡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평균보다 하회

– 대체로 전체 소득자의 평균소득보다 개인사업자의 평균소득이 약 98만원 정도 높은 수준

*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기타소득자가 포함되어 있어 전체소득자의 평균소득이 개인사업자보다 낮게 형성

– 서산은 석유화학·자동차 등 고임금 직업군이 분포하며 전체 소득자의 평균소득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나 개인사업자의 평균소득은 충남 전체 평균을 하회

– 반면, 공주과 홍성·예산 등은 세종시 배후효과, 신시가지 조성 등으로 개인사업자의 평균소득이 향상

* (서산) 지역 주민 소비 위주, 유사지역으로는 아산, 예산, 천안 등

* (공주) 타지역 주민의 소비 비중이 높은 지역, 유사지역으로는 금산, 서천, 태안 등

주요 시군의 소비행태(%)

	지역민 소비행태		타지역
	역내 소비 비중	역외 소비 비중	유입 소비 비중
서산	81.4	18.6	30.3
공주	79.3	20.7	110.1(241.3)
충남	81.2	18.8	37.3

자료 : BC카드 충남지역내·외 소비데이터(시군구), BC카드 고객 기준(4월 누계 소비액)

4) KCB 자영업자 중 카드가맹점 대표로 가입된 개인으로 자영업자 중 실질적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무급가족종사자 등은 제외)

지역민 총소비 대비 타지역 유입소비 비중(%)

계룡	공주	금산	논산	당진	보령	부여	서산	서천	아산	예산	천안	청양	태안	홍성
34.0	241.3	63.3	31.5	44.2	33.6	52.8	30.3	46.8	21.8	36.8	27.2	22.1	84.6	20.8

주1 : 충남지역 고객이 각 충남 내에서 소비한 것과 충남 외에서 소비한 것의 합을 지역민 총소비로 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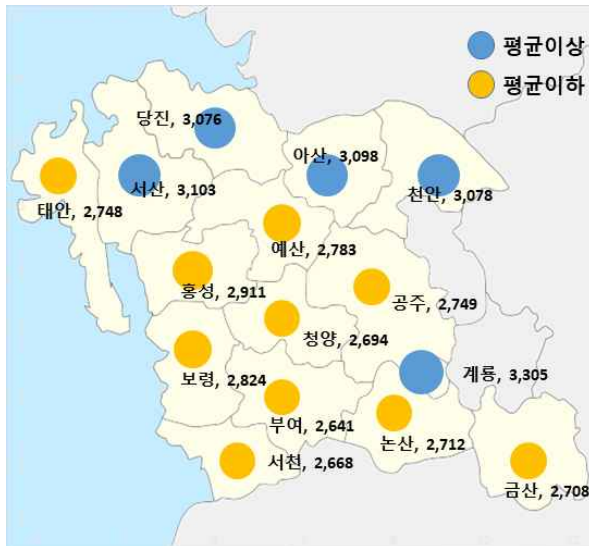
(역내소비 비중=역내소비/총소비*100, 역외소비 비중=역외소비/총소비*100 의미함.

주2 : 유입소비는 충남 외 지역 고객이 충남 내에서 소비한 것, 유입소비 비중=유입액/각 지역별 지역민 총소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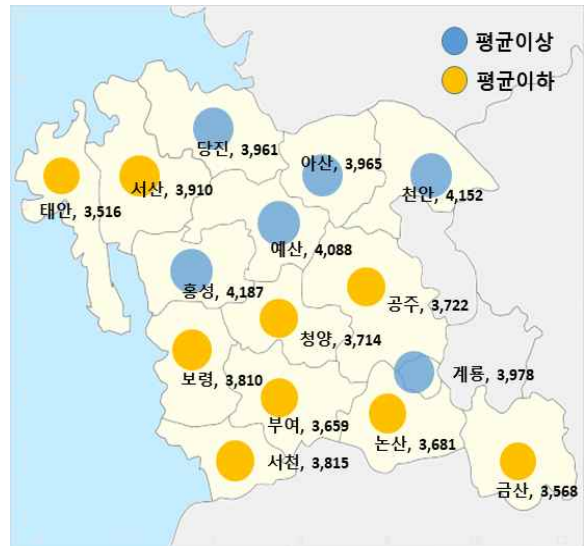
주3 : 공주는 유입소비의 약 1/2을 차지하는 단일 정수기업체를 제외한 비중이며, ()는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한 비중을 의미함.

시군별 1인당 평균소득('22.1Q, 천원)

전체 소득자



개인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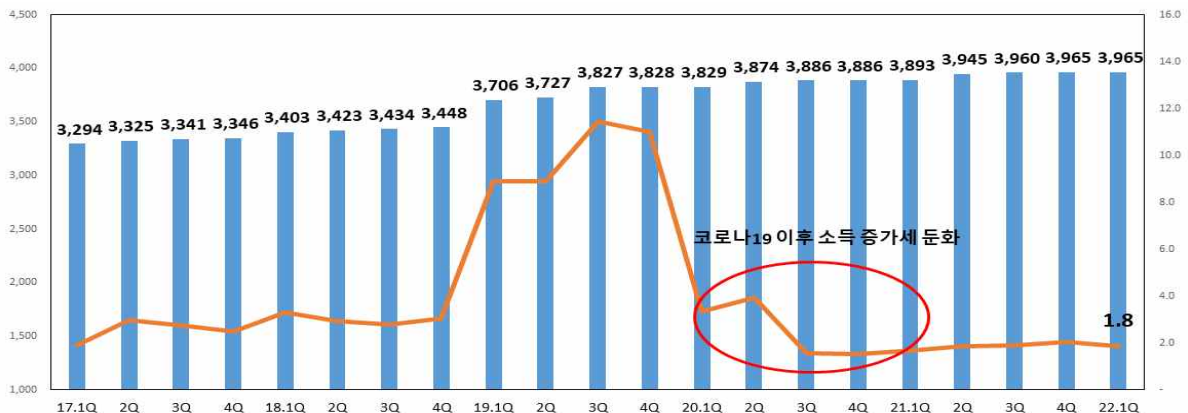
자료 : KCB 신용정보 자료(18세-104세 기준), 전국 시군구 단위 소득·소비·부채·인구통계 자료

주 : 평균소득은 집계기준 인구수에 평균소득을 역환산한 이후, 총소득/전체인구수(집계기준)로 나눈 값을 의미

○ (연령별) **코로나19 이후 개인사업자 1인당 평균소득 증가세 둔화**, 이후 정체

- 연령별 평균소득 추이를 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전국보다 높은 소득 증가세 시현
- 코로나19 발병 이후에는 60대를 제외하고는 전 연령대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증가세 둔화

개인사업자 1인당 평균소득 추이(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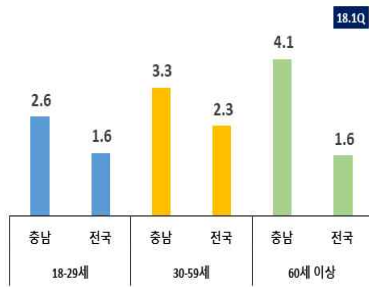


자료 : KCB 신용정보 자료(18세-104세 기준), 전국 시군구 단위 소득·소비·부채·인구통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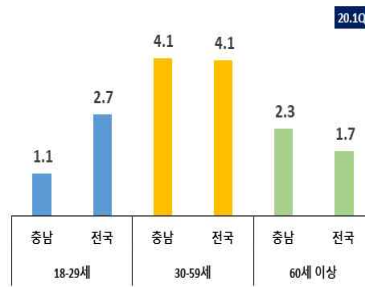
주 : 평균소득은 집계기준 인구수에 평균소득을 역환산한 이후, 총소득/전체인구수로 나눈 값을 의미

코로나19 전·후 연령별 1인당 평균소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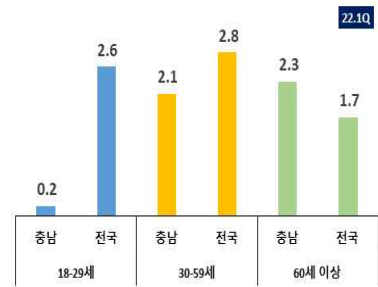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초기



현재



자료 : KCB 신용정보 자료(18세-104세 기준), 전국 시군구 단위 소득·소비·부채·인구통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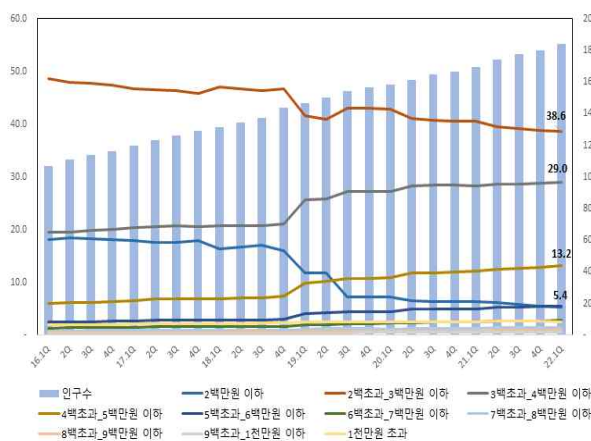
주 : 평균소득은 집계기준 인구수에 평균소득을 역환산한 이후, 총소득/전체인구수로 나눈 값을 의미

○ 코로나19 이후 저소득 개인사업자 비중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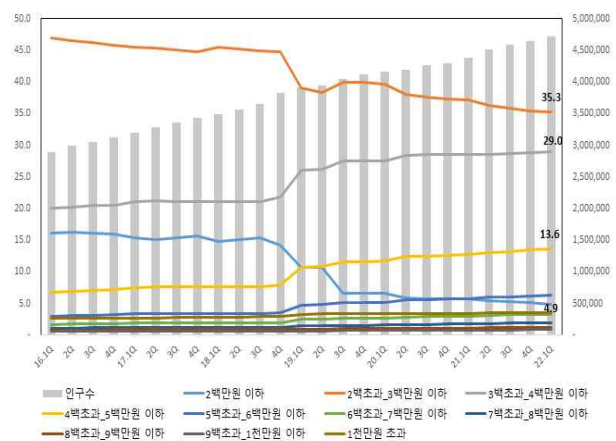
- 코로나19 초기 200만원 이하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저소득 개인사업자 타격
- 40-50대는 최근까지 위축 지속, 또한 200만원-300만원 이하에서도 40대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위축
- * 2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전년동기비(%) : 50대 -51.0('20.1Q) -22.9('21.1Q) -20.3('22.1Q)
30대 -45.0('20.1Q) -3.8('21.1Q) -9.7('22.1Q) / 40대 -64.7('20.1Q) -13.7('21.1Q) -14.6('22.1Q)
- 전국보다 높은 저소득자 비중과 그들의 위축이 전체 평균소득 증가세 둔화로 귀결

월평균소득 구간별 개인사업자 비중 추이(%)

충남



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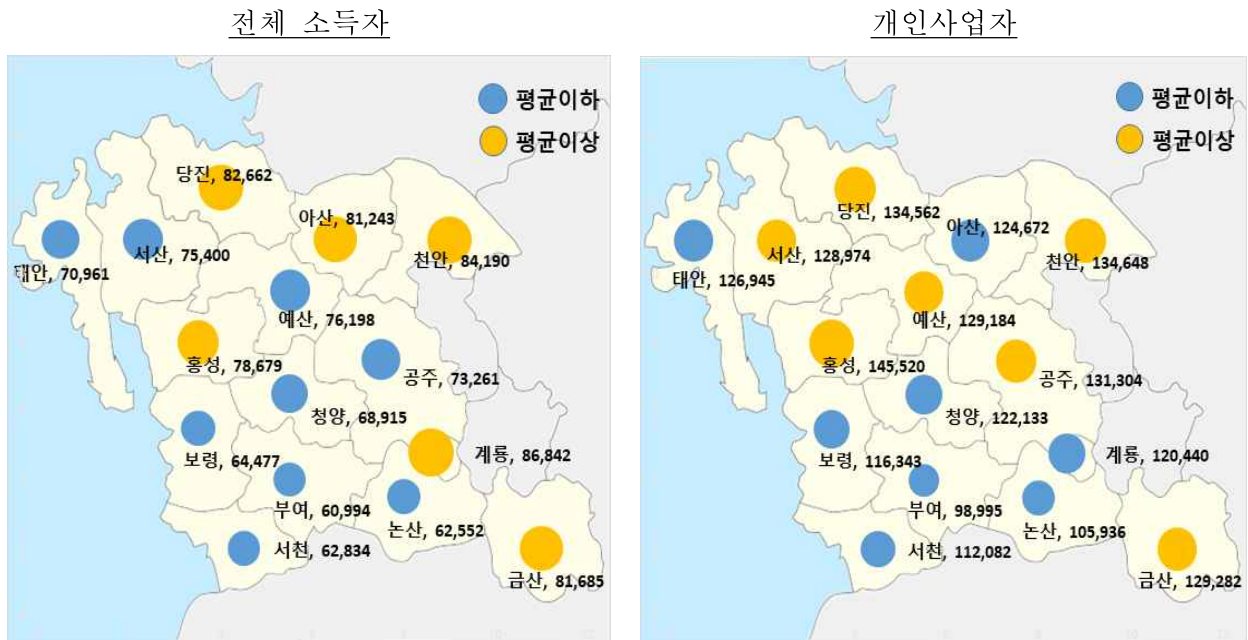


자료 : KCB 신용정보 자료(18세-104세 기준), 전국 시군구 단위 소득·소비·부채·인구통계 자료

② 부채의 변화

- 금년 1분기 개인사업자 1인당 평균 대출잔액 128,315천원, 전년동기대비 -0.3% 감소
 - 동기간 전체 소득자의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78,400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7% 증가
 - 소득 상위 지역인 북부권이 충남 전체 평균을 상회, 남부권과 서해안권은 평균을 하회
 - 최근 내륙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체로 소득과 부채가 함께 유사한 모습

시군별 1인당 평균 대출잔액('22.1Q,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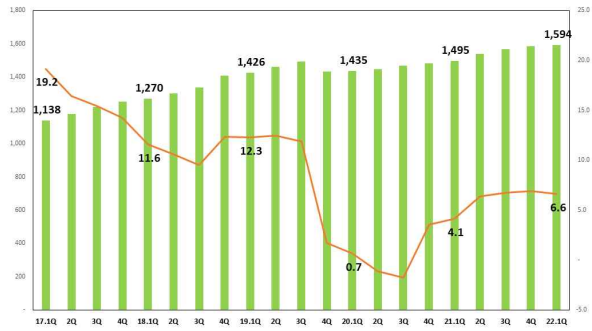
자료 : KCB 신용정보 자료(18세-104세 기준), 전국 시군구 단위 소득·소비·부채·인구통계 자료

주 : 평균대출잔액은 집계기준 대출보유자의 평균대출잔액을 역환산한 이후, 총대출잔액/대출보유자수(집계기준)로 나눈 값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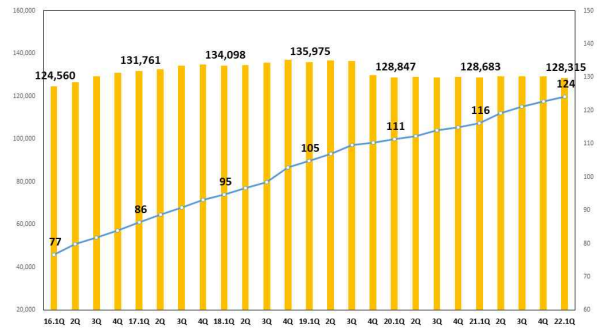
- 코로나19 초기 대출잔액 증가세 일시 둔화, 이후 최근까지 증가세 지속
 - 금년 1분기 총 대출잔액은 전년동기대비 6.6% 증가, **대출보유자가 증가**하며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소폭 감소
 - * 코로나19 이후 10~20대 자영업자가 증가, 창업을 위한 대출 증가와 소액 대출이 증가하며 평균 대출잔액은 감소
 - * 대출보유자 추이(전년동기비·%) : 5.7%('20.1Q) 4.5%('21.1Q) 6.9%('22.1Q)
 - 금융권별로 보면,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은행권 대출 확대에 비은행권 대출이 감소하였으나 지난해 이후 은행권과 더불어 증가세 전환
 - 유형별 추이를 보더라도 코로나19 초기보다 현재 카드론 등 **소액 대출이 증가**하는 모습
 - * 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은 지난해 정부의 대출규제에 따른 수요자의 선제적 대응으로 증가한 이후 유지
 - * 유형별 대출보유자수 추이(22.1Q, 전년동기비·%) : 신용(6.7) 주택담보(3.2) 카드론(1.6) 한도(4.2)
 - * 코로나19로 인한 추가대출은 약 1,700만원 수준(충남패널조사대상 코로나19 추가대출 실태조사 결과)

충남 개인사업자 대출잔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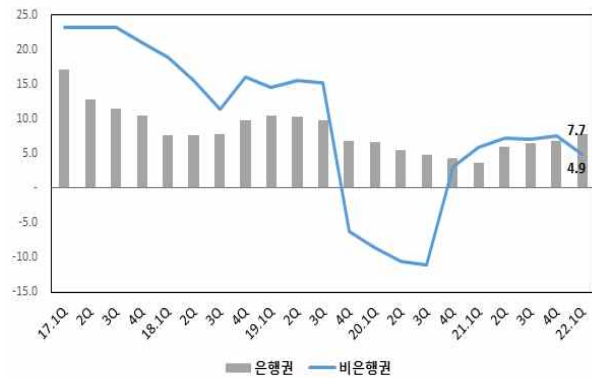
총 대출잔액(백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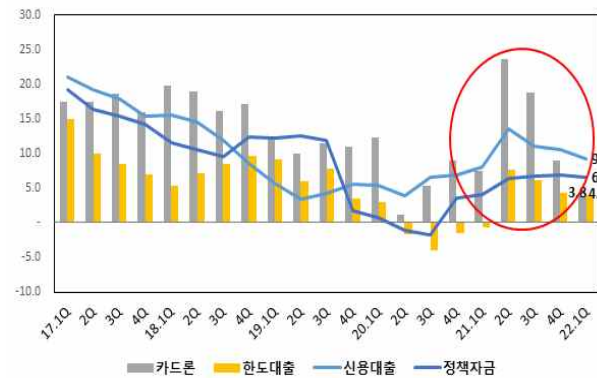
대출보유자 및 1인당 평균 대출잔액(천명, 천원)



금융권별 대출잔액 증감률(전년동기비·%)



유형별 대출잔액 증감률(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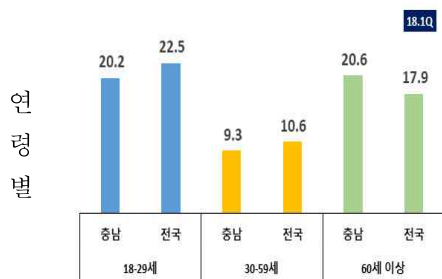
자료 : KCB 신용정보 자료(18세-104세 기준), 전국 시군구 단위 소득·소비·부채·인구통계 자료

주 : 금융권 및 유형별 총 대출잔액(주택담보대출 포함)은 집계기준 각 해당 대출보유자의 평균대출잔액을 역환산한 수치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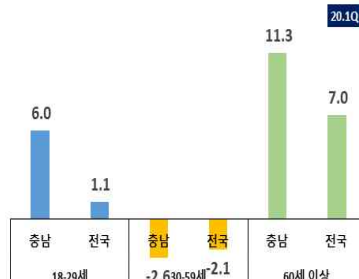
- 또한 코로나19 이후 연령별 대출 추이를 보면, 전국과 유사한 모습으로 30-50대 자영업자 비중 감소와 더불어 대출도 감소한 모습
- 30-50대를 제외한 20대와 60대 이상 대출 증가세 지속, 전국보다 높은 증가폭 시현

연령별 대출잔액(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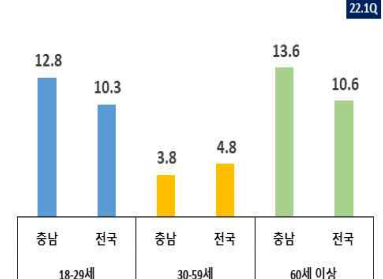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초기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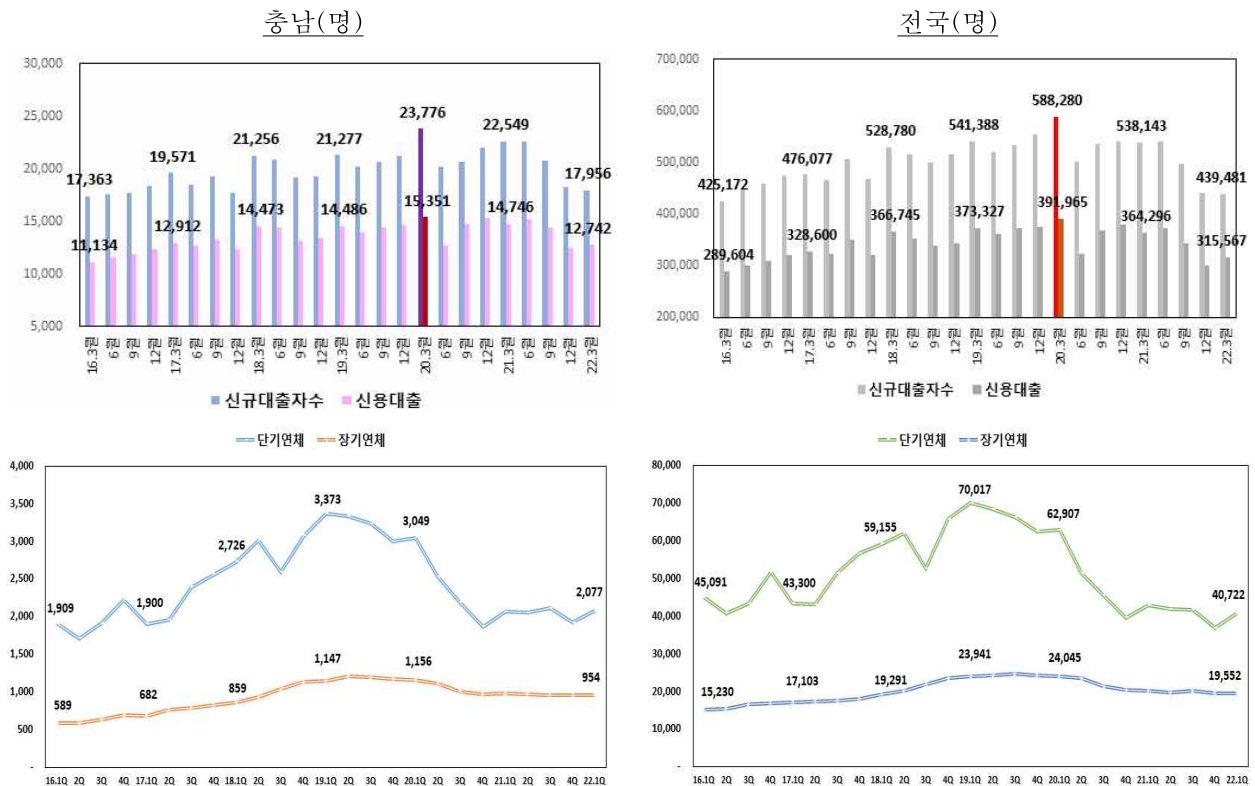
자료 : KCB 신용정보 자료(18세-104세 기준), 전국 시군구 단위 소득·소비·부채·인구통계 자료

주 : 연령별 총 대출잔액은 집계기준 각 해당 대출보유자의 평균대출잔액을 역환산한 수치를 활용

○ (신규대출자 추이) 신규대출자는 감소, 최근 장·단기연체자는 소폭 증가

- 신규대출자와 장·단기연체자 모두 전국과 유사한 모습 시현
- 신규대출자는 '20년 3월 급격하게 증가한 신규대출자는 최근 감소세 시현
- 장·단기연체자는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정책(2020.3월말 이전 대출, 2020.9월말 도래하는 것) 등으로 연체자도 일부 감소, 이후 정책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장단기연체자는 소폭 증가
- * 최근 개인사업자의 카드로 대출 증가도 장·단기연체자 증가에 요인

신규대출자 및 장·단기연체자 추이



자료 : KCB 신용정보 자료(18세-104세 기준), 전국 시군구 단위 소득·소비·부채·인구통계 자료

주1 : 신규대출자는 3월, 6월, 9월, 12월 당월의 합계 수치임.

주2 : 단기는 5영업일, 10만원 이상 연체자수(대출 혹은 카드), 장기는 90일 이상 연체자수

③ 부채위험군

○ 전반적으로 대출은 감소, 소득은 증가하며 부채위험 양호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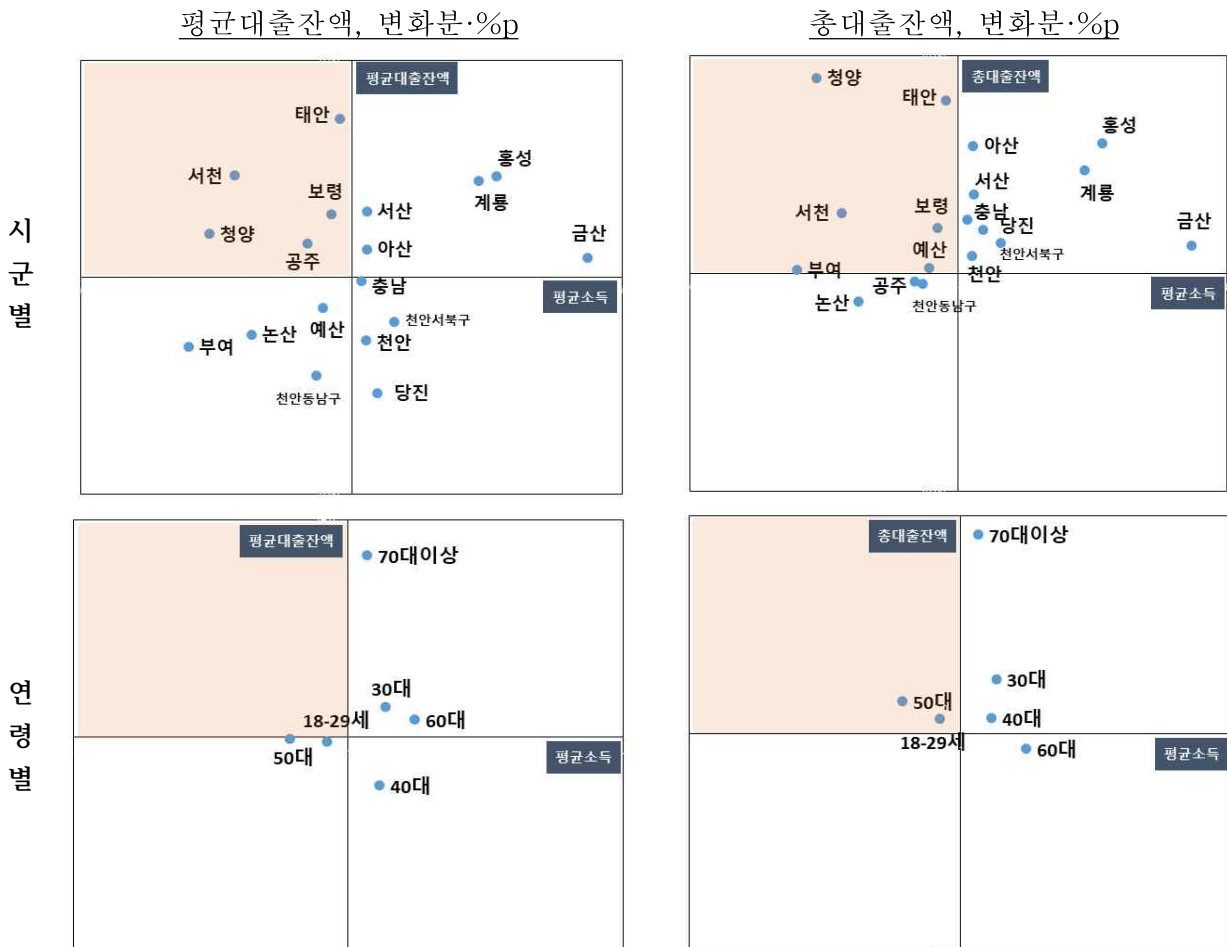
- 위험지역으로는 서천·태안·보령 등 코로나19 영향을 직격타로 받은 서해안권 집중
- 세종시 인근 도시인 공주는 소득 증가세가 둔화, 부채위험 상승
- 또한 인구감소 지역인 부여와 논산 등은 전반적인 쇠퇴로 인한 침체

○ 20대와 50대 위험도 증가

- 20대와 50대는 평균소득 증가세가 둔화, 부채는 소폭 증가하는 모습

- 또한 70대 이상 고령층의 대출은 코로나19 이후 감소하는 모습이었으나 최근 큰 폭 증가
 * 70대 이상 평균대출 증가율(전년동기비·%) : -7.4('20.1Q) -5.3('21.2Q) 6.4('22.1Q)
- 70대 이상 고령층의 대출 증가세 전환은 코로나19 이후 상환능력을 보유한 자들의 순조로운 상환, 이후 남겨진 중·고위험군의 부침에 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지속 부채위험군 20대, 50대 / 고위험군 분포 70대 이상

부채위험군(소득과 대출잔액 증감 변화)



주 : 부채위험도 변화분은 매년 1분기 기준 평균소득과 평균대출잔액(총잔액)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의 변화를 반영 (20.1Q~21.1Q년 증감률 - 20.1Q~22.1Q년 증감률)한 것

○ 상환능력 개선세 미비

- 전반적으로 신규대출자가 감소하였으나 시군간 상이한 모습, 장기연체자는 감소 중이나 단기연체자는 전 연령층에서 증가
- 상환에 부침이 예상되는 지역으로는 서천·부여·계룡, 연령별로는 최근 장기연체자 감소 폭이 둔화된 70대가 위험
 * 금년 1분기 신규대출자 증가 : 서천, 감소폭 둔화 : 부여, 계룡
-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대출금 대부분이 현상유지(임차료, 재료비)를 위한 비용으로 미래 가치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요인은 다소 낮은 편

-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종료 이후 본격적인 상환 시점 도래시 규모의 영세화와 지역경기 침체 지역의 가속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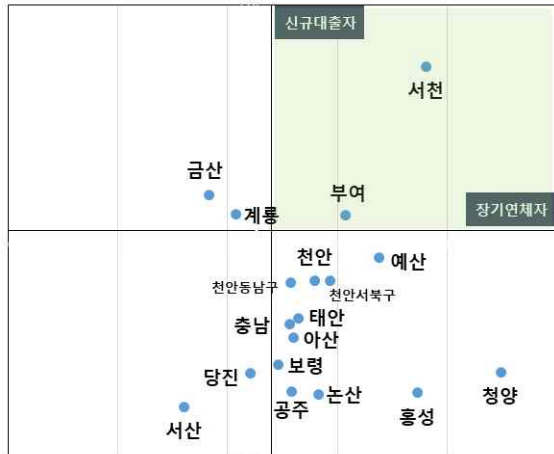
* 현재 상환중인 사업장 중 57.1%는 부침, 상환이 도래하는 대출건에 대해서는 약 52.5%가 부침을 예상

시군별 상환능력(신규대출자와 장단기연체자 증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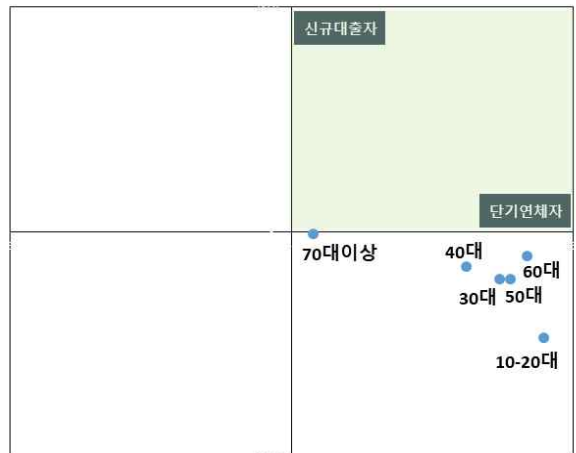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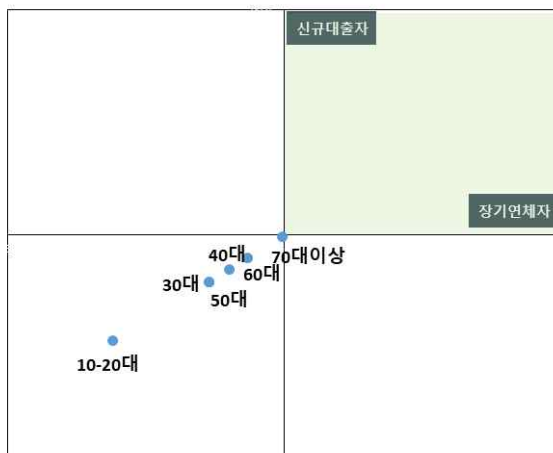
상환능력(장기연체, 변화분·%p)

상환능력(단기연체, 변화분·%p)

시
군
별



연
령
별



주 : 상환능력은 장기연체자와 단기연체자 자료를 활용하여 부채위험도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

3. 도내 소상공인 추가 대출 실태조사⁵⁾

□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소상공인 추가 대출 실태조사 결과

○ **코로나19 이후 추가 대출은 약 37.6% 수준**, 추가대출 평균금액은 약 1,708만원

- 정책금융과 개인금융을 동시 보유한 형태가 약 55.4%로 1/2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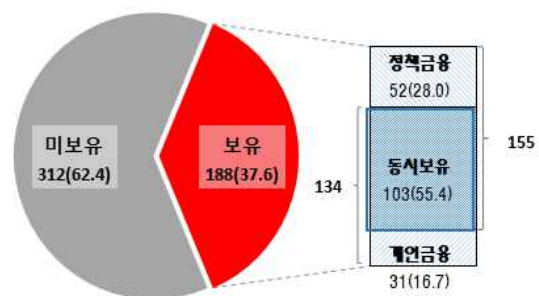
* 경제활동인구조사 자영업자 288천명, 약 37.6%가 추가대출자라고 가정하면, 약108천명이 해당

* 이를 평균 추가대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 8천 억원 수준

코로나19 이후 추가 대출 보유 여부(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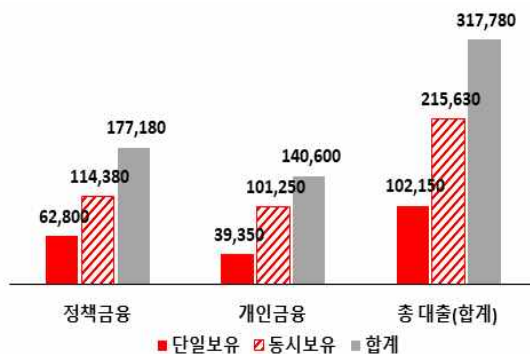
조달유형(개소, %)



자료 : 충남연구원, 충남패널조사 부가조사 결과(2022.4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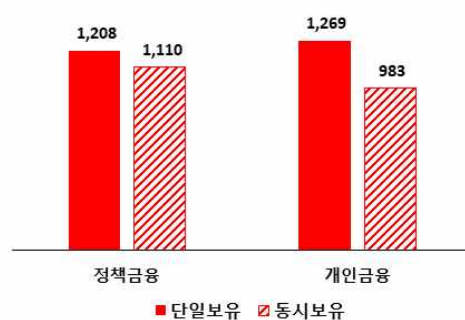
주 : 충남패널조사 대상 중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총 500개소를 대상으로

추가 총대출 규모(만원)



평균 대출금액(만원)

< 평균 총 대출금 1,708만원 >



자료 : 충남연구원, 충남패널조사 부가조사 결과(2022.4월 기준)

주 : 추가 대출이 있는 응답 중 2개소는 대출금액 무응답으로 제외함

○ **추가 대출금의 대부분은 임차료로 지급**, 현상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

- 상점가와 전통시장 모두 주 사용처는 임차료로 전체 38.2%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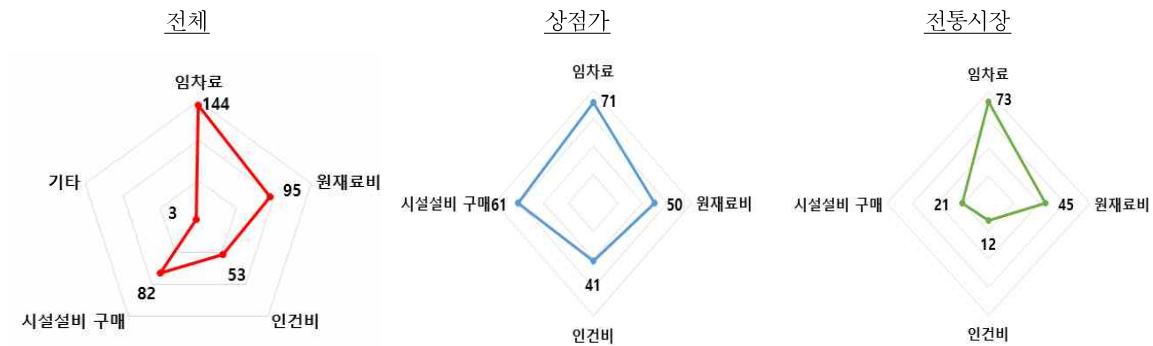
- 원재료비(25.2%)·시설설비 구매(21.8%)·인건비(14.1%) 순

- 단일 또는 가족 경영이 주가 되는 전통시장은 임차료와 원재료비 사용 비중이 높은 반면, 상점가는 상대적으로 인건비와 시설설비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

5) 충남연구원, 충남패널조사 부가조사 결과(2022.4월 기준)

- * 상점가 : 임차료(31.8%) 원재료비(22.4%) 시설설비 구매(27.4%) 인건비(18.4%)
- * 전통시장 : 임차료(48.3%) 원재료비(29.8%) 시설설비 구매(7.9%) 인건비(13.9%)

주요 사용처(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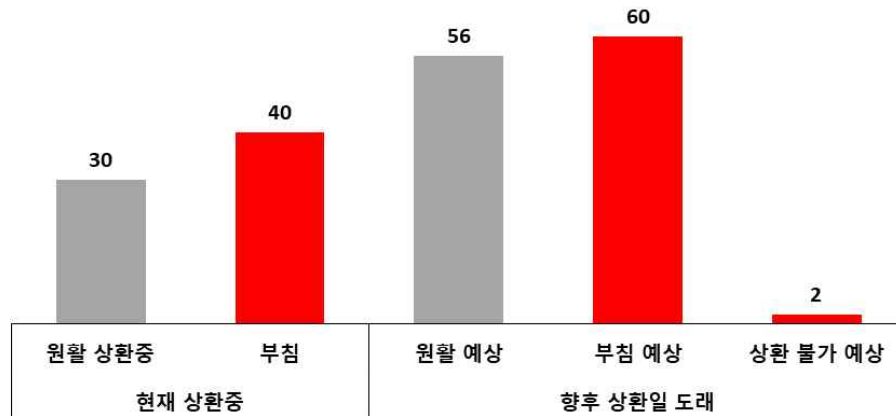


자료 : 충남연구원, 충남패널조사 부가조사 결과(2022.4월 기준), 중복응답 포함

○ 응답자 중 약 54.3%가 상환과정에서 부침을 예상

- 현재 상환을 진행 중인 사업장의 경우, 약 57.1%가 부침을 겪고 있고
- 상환이 예정된 사업장의 약 52.5%는 부침을 예상하고, 일부이지만 상환불가라고 응답한 사업장도 존재

상환능력(개소)



자료 : 충남연구원, 충남패널조사 부가조사 결과(2022.4월 기준), 중복응답 포함

4. 요약 및 시사점

□ 소상공인 분포와 산업별 변화

- (분포) 충남은 전국 7위 규모,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북부권 집중
 - 전체 사업장 중 소상공인 비중은 약 80.1%(전국 80.2%)인 약 8.4만 개 수준
 - 상대적으로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지역은 산업 기반이 약한 청양(83.7%)·금산(82.9%)·부여(82.1%)와 관광산업 중심의 태안(84.3%)·보령(83.7%)
- (경기 변동) 최근 하강국면 위치
 - 코로나19 초기 뚜렷한 경기하강 추세, 이후 소폭 회복되었으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국제정세 변화 등 불확실성 확대로 다시 하강 국면에 진입
- (세부 산업별 변화) 음식점 및 주점업, 숙박업 등은 회복, 그 외 부문 더딘 회복
 - (영세화) 스포츠 및 오락,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 (회복) 음식점 및 주점업, 농업, 숙박업 등
 - (성장, 코로나19 수혜)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관리업 등
- (소비행태 변화) 단기 대면소비의 증가, 전자상거래 등 일부 업종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 뚜렷
 - '22.2월 총신용카드 사용액 전년동월대비 3.9% 증가,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 (코로나19 타격업종의 회복) 음식점과 학원 등 단기 회복, 여가관련, 대형마트는 점진적 회복세
 - (코로나19 수혜업종) 편의점 수요는 증가, 자동차 수요는 둔화
 - 전자상거래/통신판매는 성장세 둔화0, 최근 여행 수요 대응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
- (고용시장의 변화) 전반적인 고용회복세 둔화, 근로조건 악화와 퇴사 증가
 - (인력부족 현상) 코로나19 초기(2020년 상반기) 세부 업종별 부족인원 감소 → 제조업 중심으로 부족률 증가 → 지난해말 회복세 둔화
 - (직종별 인력부족 현상) 코로나19 영향이 큰 여행, 예술 직종에서 위축이 지속, 교육, 미용·예식 등 일부 서비스직 부족률 증가

- (퇴사사유의 변화) 자진퇴사 → 경영상 → 근로조건 악화, 코로나19 이후 경영상 감원과 근로조건·임금체불에 의한 퇴사가 증가

□ 도내 자영업자 현황과 소득 및 부채의 변화

- (분포) 소상공인과 유사, 전국 자영업자 중 충남은 약 5.3% 차지
 - 전체 소득자 중 자영업자는 약 20.9%(36.7만 명) 전국 평균(16.0%)보다 높은 수준, 급여와 자영업자의 합으로 보면, 자영업자 비중은 약 33.5% 차지
 - 코로나19 이후 40-50대 비중은 감소, 20대와 60대 이상 자영업자는 증가
- (창·폐업 추이) 코로나19 이후 창업은 회복 중, 폐업보다는 휴업을 선택, 상대적으로 매출규모가 작은 소규모 사업장 피해가 가중
 -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음식점과 주점, 학원 등의 창업 위축, 업종 전체에서 휴업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중 여행업의 휴업이 큰 폭으로 증가
 - 폐업은 광학제품(사진관), 서적/문구 등 수요 둔화 업종에서 코로나19 영향이 더해지며 가속화된 모습
- (생멸 추이) 평균 영업개월수는 약 88개월, 약 7년 3개월
 - 시군구별로 보면, 부여·금산·예산·청양 등 전반적으로 경기활력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평균 영업개월수가 긴 반면 천안서북구·아산 등은 평균을 하회
 - 업종별로는 일반 서비스업보다 기술·자본집약적 업종의 평균 영업개월수가 길고, 트렌드에 민감한 업종에서 다소 짧은 것은 특징
 - 업력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초기 갓 창업한 1년 미만 사업장이 코로나19 영향을 직격타로 맞았으며 이후 코로나19 진행 과정에서도 부침이 지속, 상대적으로 5년 이상 사업장은 양호
- (소득) 개인사업자의 1인당 평균소득 3,961천원 전년동기대비 1.8% 증가
 - 전체 소득자보다 약 98만원 정도 높은 수준의 소득 수준
 - (시군별) 서산(지역주민 위주의 소비지역)은 전체 소득자의 평균소득 지역내 1위, 개인사업자 평균소득은 충남 전체 평균을 하회, 공주·홍성·예산의 개인사업자 평균소득은 항상
 - (연령별) 코로나19 이후 1인당 평균소득 증가세 둔화 & 정체, 60대를 제외하고 전연령대에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소득 증가세 시현
 - 코로나19 이후 저소득 개인사업자 비중 감소

- (부채) 개인사업자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128,315천원, 전년동기대비 -0.3% 감소
 - 금년 1분기 개인사업자 총대출잔액 약 16조원, 전년동기대비 6.6% 증가, 대출보유자가 증가하며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소폭 감소
 - (시군별) 천안·당진 등 북부권은 충남 전체 평균 사회, 부여·논산·서천 등은 평균을 하회
 - (연령별) 코로나19 이후 30-50대 자영업자 비중 감소와 더불어 대출도 감소, 그 외 연령층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 전국보다 높은 증가폭 시현
 - 코로나19 초기 전반적으로 대출잔액 증가세 둔화,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
 - 최근 카드로 등 소액 대출이 증가하는 모습
 - (신규대출자 추이) 신규대출자 감소, 장·단기 연체자는 증가
 - (시군별 부채위험군) 서천·태안·보령 등 코로나19 영향을 직격타로 받은 서해안권 집중, 공주(소득과 부채가 함께 증가한 지역, 최근 소득증가세 둔화), 부여·논산(전반적인 지역 경기 침체)
 - * 코로나19 이후 서해안권과 남부권 대출에 정의 효과 강화, 특히 남부권(논산, 계룡, 금산)에서는 카드로 대출이 장단기연체 증가에 정의 효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유의(부록3 참조)
 - (연령별 부채위험군) 20대와 50대 부채위험 지속, 최근 대출잔액과 연체자 감소를 이어오던 70대 이상 고령층의 대출 증가하며 위험군으로 대두
 - * 대출요인 분석에서 뚜렷한 대출과 부의 효과를 나타내던 50대가 코로나19 이후 감소폭 둔화, 70대 부에서 정의 효과로 전환(유의수준 다소 낮음), 지역별로는 남부권에서 60대, 서해안권 20대가 대출 증가 요인으로 대두되며 유의가 필요(부록3 참조)

□ 시사점

- 경기회복 속도와 성장성을 고려한 세부 산업별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해당 산업 또는 업종 관련 종사자의 이·전직 교육 등 연계지원 정책
 - 제조업 부문 중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산업은 상대적으로 더딘 경기회복과 낮은 수익력, 인력 구조조정과 한편으론 재고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혼합되어 상존
 - 동일업종 유사업종간의 이직과 전직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와 더불어 사업 철수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 최근 대면소비가 증가와 더불어 플랫폼 경제 등의 활력 요인 여전, 장기적으로 다변화하고 있는 소비행태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정책 강화
 - 상점가·전통시장 등 지리적 입지, 연령 등 개인적 특성 등을 반영한 지원정책의 다양화
 - 플랫폼 경제의 수도권 집중화를 고려, 전국구 플랫폼 활용 방안 마련

○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폐업보다는 휴업을 선택한 사업장 다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활력 지원**이 필요

- 관광, 축제 등 지역 특색이 반영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등

○ 코로나19 등과 같은 급격한 경제위축 요인이 발생했을 때 경쟁력이 낮은 초기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정책 필요

○ **최근 증가하는 단기부채에 대한 관리** 필요

-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개인사업자의 부채 부담과 함께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카드론 등 단기부채 증가세 뚜렷

-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대출에 대한 상환 부담이 약 52.5%가 느끼고 있는 실정

⇒ 코로나19시기의 부채는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등의 정책이 수반되고 있지만 최근 늘어나는 단기부채에 대한 정책적 관리가 필요

* 장단기 연체 및 대출 영향력 분석에서 이자율 상승은 부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정의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이자율 상승 부담은 가중될 가능성 다분

○ 시군별 상이한 부채위험 정도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 지역내 인구감소 등 경기활력이 다소 떨어지는 지역의 부채 수준이 증가 →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상존

- 태안·보령 등 서해안권은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 향후 경기회복에 기대

- 계룡·공주 등 역외 소비 비중이 높은 지역의 부채위험 증가, 공주는 세종시 배후효과로 역내로 유입되는 소비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부채위험 부담이 다소 적은 편, 계룡은 주의가 필요

○ 고위험군 선정과 지원정책의 연계 강화

-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20대 젊은 층을 위한 정책적 연계 강화(상대적으로 소액, 단기 부채 증가)

-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신규대출자와 대출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70대 이상 고령층의 부채 증가는 중·고위험군에 의한 부침일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 필요

③ 정부 및 충남 소상공인 정책검토

□ (정부 정책변화) 문재인 정부 vs. 윤석열 정부

○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을 통해 100대 국정과제의 28번 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강화’를 선정하여 추진

- 총 7차례의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발표

* 1차~4차 지원정책 주요내용 : 최저임금 인상 부담완화 방안, 안정적 경영기반 마련, 금융 접근성 제고, 사회안전망 확대, 비용부담 완화 등

* 5차, 6차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경영부담 완화, 골목상권 활력부여, 사회안전망 강화, 온라인 진출 대응력 강화 등

* 7차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소상공인 성장·혁신 방안 2.0 시행)

- 최저임금 부담 최소화로 시작,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 대상으로 확립**하여 지원을 본격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 체계적 지원을 추진, 자영업비서관실 설치, 소상공인정책실(중기부) 신설 등 기반 마련

- 그러나 지속적인 국내 내수 침체에 이어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예상치 못한 변화**로 소상공인 부문의 경영악화, 불안감은 증대

⇒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이 체계화되고, 많은 예산 투입과 선제적 정책 실현**은 일정부분 도움이 되었으나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⁶⁾

○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1번 과제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제시

- 온전한 손실보상, 채무조정, 경영부담 완화 등 긴급구조 플랜을 추진하여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온전한 손실보상 :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에 대해 온전한 보상 추진

채무조정, 금융지원 : 긴급 구제식 채무조정 추진, 대환보증 신설 등 맞춤형 금융 공급

경영부담 완화 : 임대료, 세금, 공공요금 등 경영 부담 경감, 재취업 및 업종전환 촉진

경쟁력 제고 : 준비된 창업 유도, 유망 소상공인 선별, 성장단계별 지원 등

디지털 전환 :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촉진, 소상공인 맞춤형 스마트기술 보급 등

민간주도 상권회복 : 특화상권 육성, 발전기금 제도 도입, 동네상권발전소 조성 등

⇒ **코로나19 회복과 함께 디지털 전환을 고려한 지역상권 경쟁력 제고**가 목표

6) 중소기업 정책평가와 향후과제 : 소상공인분야(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1)

□ 소상공인 관련 법령 주요 내용

○ 소상공인기본법(법률 제17623호)

- 소상공인의 자율적인 경제주체 역할을 뒷받침하고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21년 3월 9일자로 시행됨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소상공인에 대한 기존 법률이 있으나, 이러한 개별법들은 특정 목적을 두고 있어 소상공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었음
 -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에 대해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관련 정책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 소상공인 정책의 체계화, 종합화, 방향제시가 가능해졌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 확보, 정책집행기관이 통제,
 - 또한,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해 정부가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음
 -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
- ⇒ (한계)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현재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상황, 지원정책에 대한 방향설정이 중요

○ 그 외 소상공인 관련 법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292호)
 - *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설립,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을 명시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357호)
 - *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 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7814호)
 - *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
- ⇒ 소상공인 관련 법률 간의 관계 재설정 필요

□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0-2022)

○ 소상공인 실태조사와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3년 계획을 수립, 정책에 대한 비전과 목표 등을 설정하고 전략과 과제를 제시함

- 소상공인 경영환경 변화에서 크게 4가지를 제시 : 소비, 유통 트렌드의 변화(정보화, 대형화), 과밀화에 따른 과당경쟁, 인구구조 변화(저출산, 고령화), 4차산업 신기술 등장(AI, VR, AR 등)
- 이전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에서는 급속한 경영환경변화에 대응하기에 부족했고, 과밀화 및 수익성 악화 등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여 창업-성장-퇴로 단계별 안전망 강화가 필요함을 인식했으며, 상권별 특색에 맞는 반영이 미흡했다고 평가함
-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비전은 ‘환경변화에 대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로 설정하였으며, 크게 4가지 방향의 전략과제를 제시하였음

* 환경변화에 대응력 제고 : 스마트 소상공인 육성, 브랜드화를 통한 성공모델 확산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 준비된 창업 및 유망업종으로 창업유도, 매출기반강화 및 성장 혁신 지원, 원활한 재기지원과 안전망 강화

*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 특성화 시장 육성,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 및 안전강화, 청년상인 양성

* 업종별 규제완화 및 지원방안 : 규제완화, 이중행정 개선, 기준 완화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 일자리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법 제정 및 정비 등

⇒ 소상공인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한 정책 방향 설정,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단계적 접근, 상권 특성을 고려한 지원 등 기존 정책들에 비해 세분화되고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음

⇒ 그러나 코로나19 초기에 계획이 수립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으로 일부 정상적인 정책집행이 어려웠던 점은 아쉬운 부분임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연차보고서(2021.8)

○ 2021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현황과 지원정책, 정부 부처 및 지자체별 추진실적을 종합, 정리하여 제시

○ 2021년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회복지원 및 안전망 구축, 디지털 전환, 자생력 제고, 상권 활성화의 4가지로 구분

- 회복지원 및 안전망 구축

*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희망리턴패키지,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영역 보호제도 운영 등

- 디지털 전환 지원

* 스마트 상점/슈퍼/공방, 온라인 판로 지원, 간편결제시스템, 디지털 교육/컨설팅 등

- 자생력 제고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상생협력프랜차이즈 육성,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이익공유형 사업화 지원 등

-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지원, 특성화시장, 청년몰 조성, 상권르네상스, 골목형 상점가,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등

○ 지자체별 추진실적에서 충남은 12가지 지원사업을 명시함

* 코로나 극복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아이디어 공모전, 역량강화교육,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등

□ 충청남도 소상공인 발전계획 수립방안 연구용역(2018.10)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한 유일한 보고서로 비전, 목표, 추진체계, 전략 및 과제를 제시함

- 비전 : 살(Live)맛 나는 소상공인, 살(Buy)맛 나는 충남도민

- 목표 : 생업안전망 강화 + 상생시스템 구축 + 자생력 강화

- 5대 추진전략, 10대 정책과제

* 소상공인 복지강화 :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및 사회 보험료 지원, 의료기관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건강검진 서비스, 사업정리&재기지원 등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소상공인 성장지원 4종 사업

* 소상공인 애로타개 : 보부상콜센터 운영, 소상공인 연합회 지원

* 도민과 함께하는 지역매력 향상 : 충남 소상공인주간 운영, 찾아가는 행복센터 전통시장 설치

* 충남형 소상공인 지원 : 보부상버스 운영

○ 충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 지원현황 분석 및 정책 발굴(2019. 3)⁷⁾

- 충남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남경제진흥원을 통해 추진, 실태 파악과 조직정비 등을 통해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을 제안

7) 충남연구원 현안과제(2019, 이민정)

- (예비) 창업자 대상의 지원사업의 경우 초기 안정화 지원에 치중하는 경향, 창업 전 단계부터 상권분석,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현장체험, 역량강화 교육 등이 필요
- 컨설팅과 신용보증의 연계를 강화하고, 한계사업자의 경우 원활한 사업정리를 통한 재기지원을 하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온라인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 활용, 모바일 기반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 일회성, 단절적 관계를 지양하고, 적극적 니즈해결이 필요

⇒ 충남 소상공인 정책 방향은 안전망 강화, 상생, 자생력 강화 + 온라인 종합지원 플랫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으로 요약

⇒ 정부 정책변화(기본계획 등)를 고려하여 2018년 발전계획의 update 필요

4 종합 및 시사점

-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대출이 급증한 이후 상환시점이 도래, 정부의 상환 유예 정책 추진으로 효과를 보고 있으나, 정책 종료 후 상환불가 또는 연체에 대한 일시적 충격 우려
- 고령화, 저출산,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주력 소비층을 변화시켰고, 소비 트렌드의 급변과 함께 온라인 소비의 비중 증가는 가속화될 것임
 -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온라인 소비에 대해 전 연령층이 경험을 하고 익숙하게 하였으며, 최근 대면 소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온라인 소비 비중은 점차 증가할 전망
- 충남 전체 사업장 5개소 중 1개소가 소상공인, 주로 북부권에 다수 입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반적인 흐름은 정체, 시간이 흐를수록 영세화가 진행, 회복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더딘 상황
 - 최근 문화, 관광, 여가관련 업종의 수요가 회복, 음식점, 주점업은 빠른 회복을 보임
- 고용측면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상 감원과 근로조건 및 임금체불로 퇴사자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면서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관련 사업장이 충남은 급감하였음
 - 온라인 소비가 이루어지는 플랫폼 관련 업체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
- KCB와 BC카드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초기 폐업이 증가하였으나 점차 안정화된 반면 휴업은 지속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남, 업력으로는 3년 미만 사업장이 주로 감소하였으며, 매출 3억 이하 사업장도 다수가 감소함
- 또한, 개인사업자 1인당 평균소득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저소득 개인사업자 비중 감소, 반면 대출보유자는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남
 - 최근에는 소액 대출이 증가하고 70대 이상 고령층의 대출이 증가하는 등 고위험군 부채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임
- 소상공인 대상의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로 10명 중 4명이 추가대출을 받았으며, 평균대출금액은 17백만원으로 조사됨, 추가 대출금은 현상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주로 임차료로 소진되었음, 또한 상환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상자

중 절반이 상환부침을 예상하였음

⇒ 현황분석 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보다 휴업을 선택한 사업장이 많았음이 나타났으며, 추가대출 등 단기부채가 증가하면서 상황에 어려움을 겪을 사업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업종에 따라 폐업 후 재기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소상공인이 직면한 소비환경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중요함, 온라인 소비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오프라인 소비 활성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윤석열 정부 1번 정책과제의 대상이 소상공인인 만큼 다양한 지원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관련하여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필요하다면 자체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임

- 지난해에는 회복지원 및 안전망 구축, 디지털 전환지원, 자생력 제고, 상권활성화의 4가지 정책방향 하에 지원 사업이 추진되었음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으로 소상공인이 정책 대상으로의 법적 지위가 확보된 만큼 정책의 체계화, 일관성과 연속성 등이 기대됨, 또한 기본계획 수립이 명시되어 있어 정부 차원의 정책방향이 정리되면 충남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해야 할 것임

⇒ 충남은 2018년에 소상공인 관련 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새정부 정책방향과 정합성을 고려하면서 2022년 버전으로 update가 필요함

5 정책적 방향(안)⁸⁾

□ 과제1(단기) :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정상화

- 코로나19의 영향이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 이전 수준으로의 정상화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임, 새정부 과제에서도 비중 있게 언급되는 만큼 충남도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함
 -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 지자체는 실태조사,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지원으로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대응
 - * 업종별 회복, 성장 정도의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 선정이 중요
 - * 최근 대면 업종의 호황은 일시적 현상이나 최대한 지속될 수 있도록 체험행사, 축제 등을 활용하여 지역상권 내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안도 필요

□ 과제2(단기) : 정부 상환유예 정책종료 후 부채상환에 따른 일시적 충격 완화

- 정부 상환유예 정책이 종료되는 하반기, 상환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 부채의 종류와 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타겟별 맞춤형 지원정책 필요
 - 단기부채의 증가와 고위험군의 부채 증가, 시군별 상이한 부채위험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체계화
 - *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체계화하는 한편, 정책의 대상이 처한 환경을 고려해야 함

□ 과제3(중장기) : 소상공인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종합 발전방안 및 정책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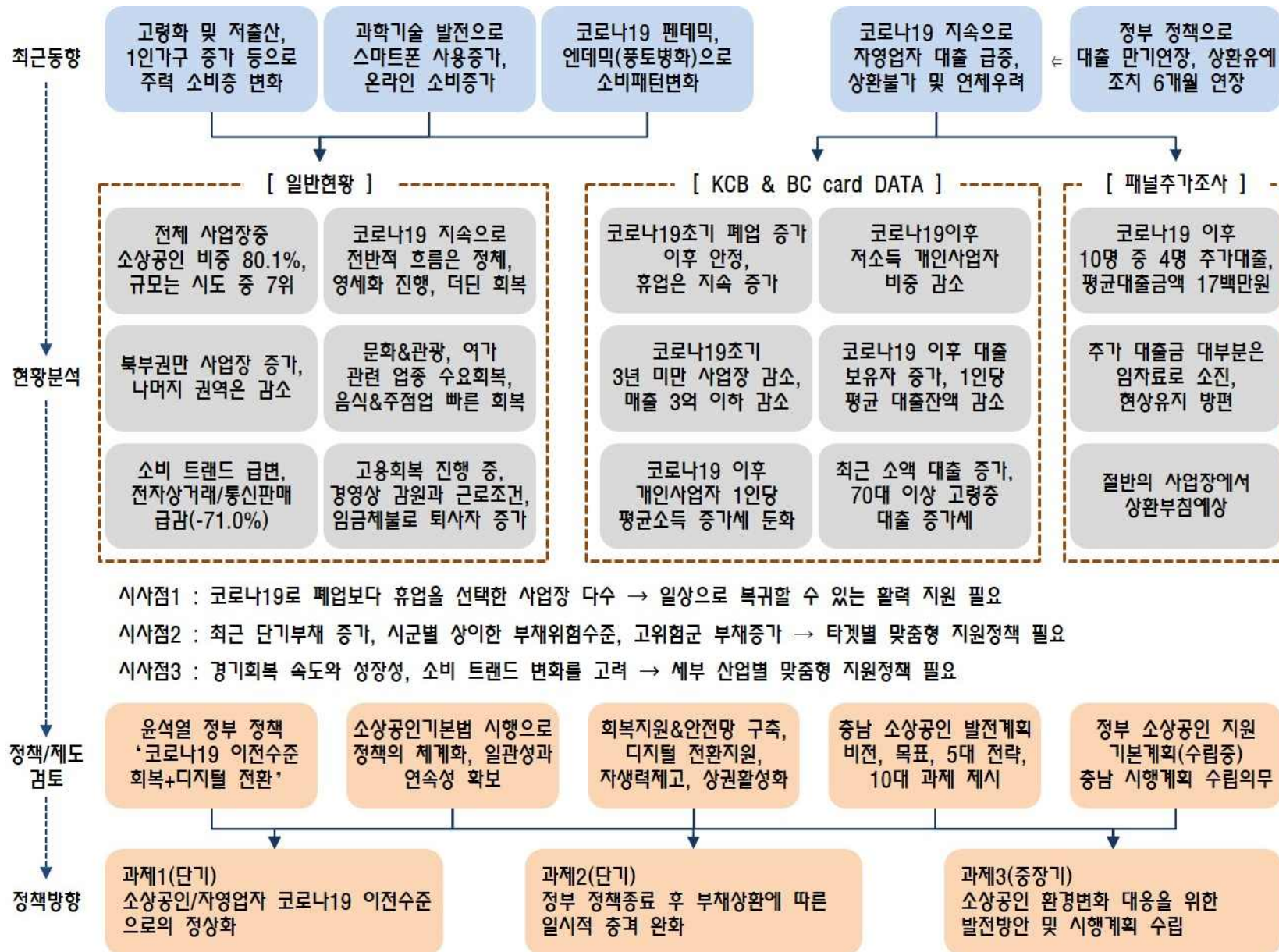
-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지켜보면서 정합성을 유지하는 한편 충남의 특성에 맞는 전략 수립이 필요
 - 안전망 구축과 디지털 전환 등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명시, 전담 부서 또는 조직 등의 설치도 중요
 - * 기 수립된 발전전략(2018)을 update 하면서 최근 동향과 이슈에 맞게 재구성하는 방안 제언
 - * 현재 정부 부처에서 소상공인과 관련한 법제도 정비, 전담부서 및 조직구성, 소상공인 범위 정의, 관련 데이터 체계화 등 다양한 과제가 추진 중임

8) 제시한 정책 방향은 향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정·보완되어야 함

< 충남경제 유관기관 의견수렴 결과 - 제15차 충남경제모니터링포럼(6.17)⁹⁾ >

- ① 최근현황 : 대출 만기연장 지원 추진 중,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 인건비 상승 우려
 - 올해 추경이 불가능한 상황, 하반기 지원금액 빠르게 소진될 전망
 - 현장에서는 물가인상, 인건비 상승으로 하반기 경영 지속이 어렵다는 의견 다수
- ② 소상공인 정책 추진에 있어 통계자료, 정책 대상 범위, 추진체계 등이 미흡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해석이 다름, 통계자료도 제각각, 현황 파악에 어려움
 - 코로나19 손실보상 과정에서 정책적 판단에 의해 대상이 축소/확대 → 혼란 가중
 - 중소벤처기업부 내에서도 소상공인 관련 업무의 역할 분담, 조직 등을 조정 중인 상황
- ③ 새 정부에서 소상공인 관련 정책 확대 전망, 정책 방향은 연말에 드러날 것
 - 이번 정부에서 1번 과제로 추진, 그러나 규제 완화가 강조되면서 우선순위 밀림
 - 그러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비중이 높아질 전망, 3, 4분기 종합대책 수립 언급
- ④ 충남은 2018년 수립된 종합계획을 업데이트해서 활용, 상권 활성화에 대한 정책 강화
 -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 보부상콜센터 운영 중
 - 올해부터 소상공인지원팀 별도로 운영 중, 경기도 우수사례인 매니저 운영 벤치마킹
- ⑤ 소상공인 정책 수립시 과당경쟁에 대한 고민 필요, 정상화에 대한 개념 재검토
 - 회복보다는 이번 기회에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필요, 과당경쟁을 고려한 정상화 중요
 - 취약한 소상공인은 폐업 후 취업전선으로, 성공 가능성 높은 소상공인은 재기지원
 - 금융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정책 중요

9)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당진상공회의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일자리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은행,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상 10개 기관 참여



부록 1. KCB 데이터와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비교

-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수 = KCB 자영업자수 + 급여소득자수
- KCB 자영업자수 = 경제활동인구조사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비임금근로자)
- 대체로 경황조사보다 임금근로자는 과소, 자영업자수는 과대

(단위:천명,%)

구분	전국			충남		
	KCB	경황	차이	KCB	경황	차이
취업자(KCB는소득자수)(A)	43,507	27,611	16,083	1,758.3	1,209	546
임금근로자(B)	19,076	21,068	-1,836	730	838	-108
비임금근로자(C)		6,543	-		371	-
자영업자(D)	6,875	5,546	1,329	363	288	75
D/A*100(자영업자 비중)	15.7	20.1	-	20.7	23.8	-
C/A*100(비임금근로자 비중)	-	23.7	-	-	30.7	-

※ 경황조사 표본

전국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 조사대상에 포함: 전입자, 비혈연 가구원, 병역특례자(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 조사대상에 제외: 군인(직업군인, 상근예비역 포함), 사회복지요원, 의무경찰, 해외상주 취업(학)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요양소, 기도원 수용자

※ KCB 만 18세~104세 이하, 우량외국인(7.5%, 충남 9.3%) 포함

(단위:명,%)

	소득자수 (D=A+B+C)	자영업자수 (A)	급여소득자 수(B)	기타소득자 수(C)	A+B	A/(A+B) *100	(A/D)* 100
서울	8,747,521	1,073,920	3,941,795	3,731,806	5,015,715	21.4	12.3
부산	2,771,842	391,396	1,225,773	1,154,673	1,617,169	24.2	14.1
대구	2,036,579	303,010	857,421	876,148	1,160,431	26.1	14.9
인천	2,444,935	347,400	1,114,237	983,298	1,461,637	23.8	14.2
광주	1,203,363	181,397	533,242	488,724	714,639	25.4	15.1
대전	1,264,014	178,181	564,916	520,917	743,097	24.0	14.1
울산	918,901	127,284	448,910	342,707	576,194	22.1	13.9
세종	274,690	43,017	141,827	89,846	184,844	23.3	15.7
경기	11,377,569	1,679,609	5,203,477	4,494,483	6,883,086	24.4	14.8
강원	1,205,254	246,302	471,789	487,163	718,091	34.3	20.4
충북	1,329,819	243,053	574,883	511,883	817,936	29.7	18.3
충남	1,758,312	367,493	729,406	661,413	1,096,899	33.5	20.9
전북	1,435,115	308,889	558,133	568,093	867,022	35.6	21.5
전남	1,423,408	359,731	522,190	541,487	881,921	40.8	25.3
경북	2,102,866	461,224	829,345	812,297	1,290,569	35.7	21.9
경남	2,683,714	510,684	1,160,484	1,012,546	1,671,168	30.6	19.0
제주	529,432	117,326	198,120	213,986	315,446	37.2	22.2
합계	43,507,334	6,939,916	19,075,948	17,491,470	26,015,864	26.7	16.0

부록 2. 코로나19 전·후 소상공인 부문 산업별 변화

코로나19 이전('18년~'19년)

사업장수		사업 체 당 평 균 고 용 인 원
영세화	성장	
농업/어업 비금속광물 광업 음료/섬유제품/의복제품/가죽,가방 및 신발/금속가공제품/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등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제외) 숙박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금융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소상공인 전반 식료품/비금속 광물/ 전자부품/의료정밀기계/전기장비/자동차/ 가구 등 제조업 수도업, 종합건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사업 체 당 평 균 고 용 인 원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코르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보험 및 연금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직별 공사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위축	규모화	

코로나19 이후('19~20년)

사업장수		사업 체 당 평 균 고 용 인 원
영세화	성장(회복)	
식료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비금속광물/1차금속/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육상운송 등 운송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부동산업/연구개발업 교육서비스업,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섬유제품/가죽,가방 및 신발/ 목재 및 나무제품/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코르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등 제조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우편 및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금융 및 보험/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등	사업 체 당 평 균 고 용 인 원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등 제조업 수도업 보건업	음료제조업 종합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 금융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서비스업	
위축	규모화	

코로나19 이후('20년~21년)

사업장수

영세화

소상공인 전반
섬유제품/ 펄프, 종이제품/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전자
부품 등/기타 기계 및 장비/기타 운송장비/가구 등 제조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종합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
정보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금융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정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음료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성장(회복)

농업
비금속광물 광업
식료품/가죽, 가방 및 신발/ 목재 및 나무제품/고무 및
플라스틱/비금속광물제품/1차금속/금속가공제품/자동차
등 제조업
산업용기계 및 장비 수리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육상운송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우편 및 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연구개발업
부동산업, 임대업(부동산제외)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임업, 어업
의복, 의복 액세서리 등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수상운송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사업
체
당
평
균
고
용
인
원

위축

규모화

자료 : 고용보험, 비정형통계, 산업별 중분류·규모별 통계(각 연도별 12월 기준)

주 : 본 분석에서 정의한 소상공인 정의를 적용, 사업체당평균고용인원=피보험자수/사업장수를 의미함.

부록 3. 대출 및 장단기 연체 요인 분석

□ 충남 자영업자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방법론

- 시스템GMM(종속변수의 시차변수가 독립변수에 포함,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 제시)
- 과대식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argan 검정을 실시 ⇒ 과대식별 문제 없음 확인
- 독립변수 : 소득, 전기대출잔액, 이자율, 자영업자 연령, 지역 및 코로나19 더미

○ 결과

- 전반적으로 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보유하고 있던 대출
- 또한 고소득층의 대출 증가도 이어지며 실질소득과도 정의 효과 강화되고 이자율 상승도 대출 감소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
- 연령별로 보면, 전기간 대출에 부의 효과를 나타낸 50대와 70대 영향력이 코로나19 둔화, 정의 효과로 전환
- 40대 자영업자가 많을수록 대출은 증가하였는데, 코로나19 이후 대체로 모든 연령층에서 대출 증가세 시현(유의수준은 다소 낮음)
- 지역별로 보면, 북부권은 40대 연령층에서 강한 정의 효과, 20대 연령층에서 정의 효과를 나타낸 서해안권과 60대 연령층에서 정의 효과를 보인 남부권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에 민감한 모습

⇒ 이자율과 대출잔액 간 정의 효과 발생, 코로나19 이후 현상 강화

⇒ 최근 이자율 상승은 상대적으로 이자율 민감도가 떨어진 서해안권과 남부권에서 높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다분

		충남		북부권		서해안권		내륙권		남부권	
		전기간	코로나19 이후	전기간	코로나19 이후	전기간	코로나19 이후	전기간	코로나19 이후	전기간	코로나19 이후
전기대출		0.983***	0.712***	1.033***	0.835***	0.862***	0.562***	0.933***	0.823***	0.970***	0.771***
실질소득		0.022	0.253***	-0.057	0.163	0.158	0.386**	0.073	0.112	0.041	0.051
r		0.045	1.557***	-0.317**	0.673*	0.600*	2.806***	0.225	1.124**	0.26	2.041***
r ²		-0.008	-0.239***	0.046**	-0.117*	-0.002*	-0.459***	-0.036	-0.187**	-0.044	-0.340***
연령	20대	-0.007	0.005	-0.050***	-0.001	0.013	0.081***	-0.016	-0.019	-0.013	-0.028
	30대	0.019	0.015	0.017	-0.114**	-0.006	-0.037	0.01	0.038	0.070*	-0.035
	40대	0.083***	0.032	0.145**	0.182*	0.099	-0.096	0.076**	0.042	0.004	0.108
	50대	-0.077**	-0.043	-0.009	-0.049	-0.092	-0.059	-0.062	-0.032	-0.125**	-0.028
	60대	-0.012	0.052***	-0.052**	0.012	0.018	0.11	0.019	0.052	0.023	0.137**
	70대~	-0.004	0.009	0.012	0.015	-0.070**	0.012	-0.018	0.013	0.01	-0.002

유의수준: * p<.1; ** p<.05; *** p<.01

□ 장단기 자영업자 연체자 요인 분석

○ 방법론

- GLS 방법(하우스만 검정 실시, 귀무가설 채택함에 따라 랜덤효과 분석 실시)
- 독립변수 : 신용대출, 카드론, 기타대출, 실질소득, 이자율

○ 결과

- 장단기연체 모두 실질소득과 정의 관계 형성, 소득 증가가 부채 위험을 줄여주지 못함
- 북부권은 이자율 상승에 따른 연체 감소가 나타났으나 기타 지역은 이자율과의 역의 관계에 낮은 상관성을 보임
- (장기연체) 카드론 등 고위험 연체 영향은 다소 낮지만 신용대출에 따른 연체 가능성은 상존, 다만 지역별로 보면 남부권에서는 카드론에 따른 장기 연체 위험 감지
- 전기간 장기연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소득구간은 4백만원 초과 5백만원 미만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2백만원 이하 저소득층과 5백만원 이상 천만원 미만 중·고소득층에 속하는 자영업자의 장기연체 영향력이 증가
- (단기연체) 신용카드 대출과 기타 대출이 단기연체 정의 효과, 남부권의 경우 장기연체와 동일하게 카드론 대출 영향도 유의
- 단기연체에서도 전기간 가장 큰 정의 효과를 보인 소득구간은 4백만원 초과 5백만원 미만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2백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연체 가능성 증가

	장기연체자				
	충남	북부권	서해안권	내륙권	남부권
신용대출	0.117	-0.074	0.083	0.438	0.01
카드론	-0.021	-1.069***	-0.805	-0.699**	1.230*
기타대출	0.066	-0.623***	-0.338	-0.202	1.186***
실질소득	0.924***	1.471***	1.455***	1.311***	0.977**
r	-0.15	-5.472***	0.518	5.842***	-0.202
r ²	0.093	0.933***	0.023	-0.830**	0.061
상수항	-9.041***	3.279	-9.439	-22.320***	-11.359*
	단기연체자				
	충남	북부권	서해안권	내륙권	남부권
신용대출	0.281*	0.651***	-0.22	0.850***	-0.945*
카드론	0.212	-0.580**	-0.631	-0.316	2.818***
기타대출	0.313**	-0.01	-0.38	0.251*	1.983***
실질소득	0.528***	0.850***	1.274***	0.689***	0.838**
r	1.026	-1.983**	2.07	4.082***	2.709
r ²	-0.047	0.426***	-0.183	-0.520**	-0.352
상수항	-8.745***	-6.542***	-6.975	-18.497***	-10.636*

유의수준: * p<.1; ** p<.05; *** p<.01

부록 4. 주요 활용 통계

① 소상공인 사업장 및 상실자수 추이

(단위 : 개소, 명, %)

	사업장 수	증감률	순환 변동치	추세 변화	상실자수			
					전체	증감률	5인 미만	증감률
'18.1	76,280		100.6	0.6	31,528		6,245	
2	73,414		100.0	0.0	17,059		4,063	
3	70,785		100.0	0.0	26,246		5,455	
4	74,140		98.7	-1.3	19,406		4,336	
5	76,763		100.0	0.0	17,897		4,247	
6	76,550		102.3	2.3	18,722		4,180	
7	75,844		102.8	2.8	24,556		4,481	
8	77,249		102.7	2.7	19,883		4,086	
9	72,943		100.8	0.8	16,957		3,500	
10	77,990		101.5	1.5	18,366		4,001	
11	79,796		102.3	2.3	17,355		3,938	
12	80,658		105.5	5.5	19,415		4,385	
'19.1	76,356	0.1	104.5	4.5	33,508	6.3	5,691	-8.9
2	67,105	-8.6	98.6	-1.4	16,207	-5.0	3,829	-5.8
3	72,139	1.9	94.6	-5.4	26,085	-0.6	5,239	-4.0
4	76,540	3.2	94.4	-5.6	19,747	1.8	4,304	-0.7
5	78,346	2.1	99.0	-1.0	18,758	4.8	4,383	3.2
6	75,917	-0.8	100.3	0.3	18,720	0.0	4,098	-2.0
7	78,269	3.2	100.8	0.8	23,711	-3.4	4,748	6.0
8	77,337	0.1	100.0	0.0	18,248	-8.2	4,319	5.7
9	72,509	-0.6	98.2	-1.8	17,625	3.9	4,101	17.2
10	77,655	-0.4	97.6	-2.4	19,476	6.0	4,694	17.3
11	80,493	0.9	98.6	-1.4	18,667	7.6	4,646	18.0
12	82,765	2.6	102.6	2.6	20,315	4.6	4,631	5.6
'20.1	77,081	0.9	102.0	2.0	32,694	-2.4	5,822	2.3
2	72,249	7.7	98.1	-1.9	20,680	27.6	5,078	32.6
3	78,111	8.3	95.8	-4.2	28,324	8.6	5,619	7.3
4	79,743	4.2	96.5	-3.5	18,906	-4.3	4,689	8.9
5	79,920	2.0	99.3	-0.7	16,532	-11.9	3,854	-12.1
6	80,088	5.5	99.7	-0.3	18,234	-2.6	4,191	2.3
7	79,647	1.8	99.2	-0.8	21,731	-8.4	4,750	0.0
8	79,472	2.8	98.6	-1.4	18,287	0.2	4,364	1.0
9	80,111	10.5	98.2	-1.8	20,201	14.6	4,724	15.2

10	80,906	4.2	98.2	-1.8	18,717	-3.9	4,715	0.4
11	80,162	-0.4	98.0	-2.0	20,297	8.7	4,500	-3.1
12	78,801	-4.8	97.0	-3.0	26,332	29.6	5,707	23.2
'21.1	74,381	-3.5	93.9	-6.1	40,044	22.5	7,136	22.6
2	76,891	6.4	92.2	-7.8	17,745	-14.2	4,502	-11.3
3	84,456	8.1	94.0	-6.0	29,618	4.6	5,755	2.4
4	88,724	11.3	99.2	-0.8	22,016	16.4	4,817	2.7
5	92,417	15.6	104.8	4.8	20,254	22.5	4,355	13.0
6	92,536	15.5	107.5	7.5	20,949	14.9	4,854	15.8
7	98,304	23.4	110.7	10.7	24,350	12.1	5,235	10.2
8	86,534	8.9	107.9	7.9	19,546	6.9	4,426	1.4
9	90,314	12.7	106.5	6.5	24,659	22.1	4,479	-5.2
10	89,333	10.4	102.5	2.5	20,439	9.2	4,725	0.2
11	91,910	14.7	104.1	4.1	21,439	5.6	5,002	11.2
12	91,994	16.7	104.3	4.3	27,771	5.5	5,370	-5.9
'22.1	78,073	5.0	99.5	-0.5	37,445	-6.5	7,202	0.9
2	80,350	4.5	94.7	-5.3	18,092	2.0	4,688	4.1
3	84,132	-0.4	91.3	-8.7	29,902	1.0	5,772	0.3

자료 : 고용보험, 비정형통계, 사업장수 / 피보험자수, 상실자수

주1 : 소상공인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기준(제조업,건설업,광업,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과 매출액(3년평균 10억이하 또는 120억원 이하(제조업))으로 분류

구분	소상공인 규모	소상공인 3년 평균 매출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10억원 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그 외 업종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20억원 이하(제조업)

주2 : 본 분석에서는 고용보험 비정형통계에서 제공하는 기업규모별 통계를 활용함에 따라 세부산업별 상시근로자수만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을 정의, 기타 소상공인 통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3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로 1인(가족형태)이 운영하여 고용보험 의무대상 가입이 아닌 자영업자 추이는 별도로 분석함.

② 자영업자수 추이(단위 : 명)

	전국	충남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16.1Q	5,489,316	291,218	62,184	18,452	17,459	31,768	22,980	20,727	3,366	23,795	10,943	15,872	11,399	8,010	17,165	15,485	11,613
2Q	5,577,544	296,660	63,710	18,930	17,832	32,261	23,598	21,157	3,449	24,353	11,032	15,984	11,560	8,072	17,243	15,557	11,922
3Q	5,594,686	298,761	64,199	19,048	17,913	32,601	23,809	21,431	3,497	24,311	11,059	16,068	11,607	8,082	17,297	15,793	12,046
4Q	5,587,084	300,226	64,291	19,196	17,956	32,904	24,037	21,565	3,528	24,309	11,109	16,126	11,676	8,073	17,376	15,881	12,199
'17.1Q	5,652,221	305,204	65,695	19,392	18,145	33,499	24,397	21,771	3,620	25,007	11,177	16,229	11,811	8,224	17,721	16,055	12,461
2Q	5,664,008	306,151	65,677	19,434	18,214	33,748	24,542	21,815	3,517	25,165	11,198	16,239	11,833	8,286	17,835	16,119	12,529
3Q	5,592,433	305,346	65,046	19,333	18,075	33,422	24,560	21,772	3,482	25,065	11,211	16,300	11,870	8,304	18,162	16,139	12,605
4Q	5,618,331	307,617	65,793	19,336	18,235	34,130	24,719	21,997	3,488	25,231	11,207	16,410	11,947	8,349	17,902	16,207	12,666
'18.1Q	5,592,581	306,717	65,434	19,205	18,169	33,688	24,954	21,877	3,459	25,180	11,162	16,409	11,914	8,368	17,953	16,217	12,728
2Q	5,575,849	305,836	65,078	19,086	18,230	33,458	24,981	21,850	3,414	25,039	11,098	16,409	11,846	8,343	17,977	16,267	12,760
3Q	5,581,232	306,782	65,443	19,089	18,311	33,543	25,109	21,918	3,425	25,009	11,138	16,400	11,799	8,365	17,995	16,348	12,890
4Q	6,112,724	325,977	72,391	19,856	19,063	36,959	26,785	22,829	3,836	26,382	11,382	16,911	12,104	8,519	18,668	16,899	13,393
'19.1Q	6,165,118	328,879	72,787	20,009	19,164	37,309	27,198	22,947	3,857	26,696	11,380	16,991	12,146	8,693	18,794	16,985	13,923
2Q	6,246,493	332,616	74,555	19,754	19,225	38,546	27,055	22,764	4,197	27,251	11,360	16,828	11,880	8,674	19,815	16,913	13,799
3Q	6,322,865	336,689	76,691	19,808	19,302	38,972	27,588	23,136	4,205	27,153	11,233	16,895	12,009	8,683	19,884	17,102	14,028
4Q	6,351,975	337,127	77,273	19,805	19,270	38,461	27,721	23,259	4,196	27,282	11,231	16,884	11,974	8,644	19,942	17,155	14,030
'20.1Q	6,400,538	339,341	77,408	20,190	19,223	39,668	27,934	23,429	4,182	27,189	11,242	16,991	12,028	8,655	19,971	17,147	14,084
2Q	6,436,919	342,565	78,266	20,564	19,403	39,853	28,161	23,842	4,229	27,359	11,265	16,959	12,122	8,749	20,129	17,394	14,270
3Q	6,483,155	345,785	79,445	20,485	19,705	40,489	28,333	23,834	4,281	27,654	11,374	17,014	12,121	8,782	20,328	17,471	14,469
4Q	6,512,733	346,769	80,113	20,480	19,768	40,482	28,543	23,822	4,337	27,791	11,325	16,954	12,115	8,769	20,342	17,448	14,480
'21.1Q	6,628,935	351,337	81,373	20,714	19,979	41,168	29,108	24,082	4,396	28,241	11,397	17,026	12,259	8,826	20,509	17,626	14,633
2Q	6,664,538	353,648	81,987	20,759	20,026	41,708	29,366	24,214	4,421	28,394	11,529	17,084	12,287	8,832	20,668	17,654	14,719
3Q	6,765,517	359,383	83,532	20,985	20,310	42,666	29,867	24,683	4,495	28,875	11,653	17,273	12,390	8,987	20,956	17,804	14,907
4Q	6,824,198	362,392	84,527	21,055	20,429	43,375	30,165	24,778	4,530	29,169	11,674	17,385	12,382	8,977	21,029	17,917	15,000
'22.1Q	6,999,916	367,493	86,409	21,153	20,668	44,418	30,568	24,981	4,670	29,530	11,750	17,573	12,439	9,015	21,183	18,054	15,082

자료 : KCB 개인신용정보, 개인정보에 자영업자라고 응답한 자

(연령대별 비중(단위 : %))

	전국						충남					
	10-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이상	10-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16.1Q	2.5	12.3	25.3	30.1	17.3	12.5	2.2	9.7	20.3	26.3	19.8	21.7
2Q	2.5	12.4	25.2	30.0	17.4	12.5	2.2	9.8	20.2	26.2	19.9	21.7
3Q	2.5	12.2	25.0	30.0	17.6	12.7	2.2	9.7	20.0	26.1	20.0	22.0
4Q	2.4	12.0	24.7	30.0	17.9	12.9	2.1	9.6	19.8	26.1	20.2	22.2
'17.1Q	2.4	12.0	24.4	29.9	18.1	13.2	2.2	9.6	19.5	26.0	20.3	22.5
2Q	2.4	11.9	24.1	29.8	18.4	13.5	2.1	9.5	19.3	25.9	20.4	22.8
3Q	2.3	11.5	23.8	29.8	18.9	13.7	2.1	9.2	19.0	25.8	20.8	23.2
4Q	2.3	11.3	23.6	29.8	19.1	13.9	2.0	9.1	18.9	25.7	21.0	23.4
'18.1Q	2.2	11.1	23.1	29.8	19.5	14.3	1.9	8.8	18.5	25.7	21.3	23.8
2Q	2.1	10.9	22.8	29.8	19.8	14.5	1.8	8.7	18.2	25.7	21.5	24.0
3Q	2.1	10.8	22.4	29.9	20.1	14.7	1.8	8.6	17.9	25.7	21.7	24.3
4Q	2.5	11.7	22.7	29.4	19.7	13.9	2.1	9.2	18.2	25.7	21.4	23.5
'19.1Q	2.5	11.6	22.4	29.3	20.0	14.2	2.0	9.0	18.0	25.6	21.5	24.0
2Q	2.7	11.8	22.3	29.1	20.0	14.1	2.1	9.2	18.0	25.4	21.5	23.8
3Q	2.7	11.6	22.1	29.1	20.2	14.3	2.1	9.2	17.9	25.4	21.6	23.8
4Q	2.7	11.5	21.9	28.8	20.6	14.4	2.1	9.1	17.7	25.2	21.9	24.0
'20.1Q	2.7	11.3	21.8	28.7	21.0	14.6	2.1	8.9	17.7	24.9	22.2	24.3
2Q	2.7	11.3	21.6	28.4	21.2	14.7	2.1	8.8	17.4	24.7	22.4	24.5
3Q	2.8	11.2	21.4	28.3	21.5	14.8	2.2	8.8	17.3	24.5	22.6	24.6
4Q	2.9	11.2	21.2	28.0	21.8	14.9	2.3	8.8	17.2	24.2	22.9	24.6
'21.1Q	3.0	11.2	21.1	27.7	22.1	14.9	2.4	8.7	17.1	23.8	23.4	24.6
2Q	3.1	11.2	20.9	27.4	22.5	15.0	2.4	8.7	16.9	23.5	23.7	24.8
3Q	3.1	11.2	20.7	27.3	22.6	15.0	2.5	8.8	16.8	23.3	23.7	24.9
4Q	3.2	11.2	20.6	27.1	22.7	15.1	2.5	8.8	16.7	23.2	23.8	25.0
'22.1Q	3.2	11.2	20.6	27.0	22.8	15.2	2.6	8.7	16.7	23.1	23.8	25.1

③ 자영업자 비중 및 1인당 평균소득·대출 추이

(단위: 명, 천원, %)

	전국			충남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비중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비중	평균소득	평균 대출잔액
'16.1Q	5,469,316	2,407,749	44.0	291,218	92,116	31.6	3,227	124,560
2Q	5,577,544	2,493,474	44.7	296,660	95,402	32.2	3,222	126,638
3Q	5,594,686	2,508,831	44.8	298,761	96,606	32.3	3,242	129,324
4Q	5,587,084	2,529,770	45.3	300,226	98,118	32.7	3,256	130,809
'17.1Q	5,652,221	2,563,844	45.4	305,204	99,934	32.7	3,285	131,761
2Q	5,664,003	2,599,069	45.9	306,151	101,696	33.2	3,315	132,508
3Q	5,592,433	2,620,850	46.9	305,346	103,025	33.7	3,328	134,252
4Q	5,618,331	2,658,986	47.3	307,617	105,049	34.1	3,333	134,667
'18.1Q	5,592,581	2,666,740	47.7	306,717	105,434	34.4	3,388	134,098
2Q	5,575,849	2,691,625	48.3	305,836	106,579	34.8	3,407	134,583
3Q	5,581,232	2,710,850	48.6	306,782	107,393	35.0	3,417	135,738
4Q	6,112,724	3,221,870	52.7	325,977	124,392	38.2	3,444	136,905
'19.1Q	6,165,118	3,287,958	53.3	328,879	126,660	38.5	3,700	135,975
2Q	6,246,493	3,418,842	54.7	332,616	132,732	39.9	3,723	136,730
3Q	6,322,865	3,497,441	55.3	336,689	136,184	40.4	3,823	136,421
4Q	6,351,975	3,550,190	55.9	337,127	137,984	40.9	3,824	129,833
'20.1Q	6,400,593	3,603,111	56.3	339,341	140,185	41.3	3,825	128,847
2Q	6,436,919	3,686,718	57.3	342,565	144,044	42.0	3,869	128,959
3Q	6,483,155	3,743,569	57.7	345,785	147,183	42.6	3,882	128,675
4Q	6,512,733	3,766,585	57.8	346,769	148,536	42.8	3,882	129,052
'21.1Q	6,628,935	3,856,272	58.2	351,337	151,736	43.2	3,890	128,683
2Q	6,664,538	3,914,658	58.7	353,648	153,651	43.4	3,940	129,143
3Q	6,765,517	4,007,962	59.2	359,383	157,899	43.9	3,955	129,337
4Q	6,824,198	4,052,832	59.4	362,392	159,888	44.1	3,961	129,327
'22.1Q	6,939,916	4,158,914	59.9	367,493	164,841	44.9	3,961	128,315

자료 : KCB 신용정보 자료

주1 : 자영업자란, 신용정보에 본인이 자영업자라고 응답한자이며 개인사업자란 자영업자 중 실질적인 대표자(카드 가맹점 대표)를 의미함.

주2 : 1인당 평균소득은 소득자와 평균소득을 역환산한 이후 총소득/소득자로 계산한 수치이며, 대출잔액은 대출보유자의 평균잔액을 역환산 이후 재계산한 수치임.

주3 : 평균소득과 대출잔액에 대한 정보는 개인사업자 정보를 활용함.

(연령대별 1인당 평균소득)

(단위 : 천원, %)

	18-29세		30-59세		60세 이상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16.1Q	1,979	1,948	3,325	3,498	2,929	3,365
2Q	1,960	1,951	3,323	3,519	2,932	3,382
3Q	1,969	1,953	3,345	3,544	2,947	3,391
4Q	1,985	1,962	3,366	3,562	2,944	3,393
'17.1Q	2,017	1,963	3,397	3,600	2,972	3,399
2Q	2,044	1,968	3,431	3,616	3,003	3,408
3Q	2,040	1,972	3,449	3,628	3,017	3,407
4Q	2,050	1,978	3,454	3,635	3,030	3,415
'18.1Q	2,069	1,995	3,510	3,684	3,094	3,453
2Q	2,092	2,000	3,533	3,693	3,114	3,459
3Q	2,093	2,000	3,545	3,701	3,129	3,465
4Q	2,133	2,005	3,568	3,743	3,180	3,483
'19.1Q	2,322	2,183	3,841	4,028	3,393	3,718
2Q	2,311	2,181	3,866	4,052	3,416	3,736
3Q	2,362	2,238	3,981	4,171	3,485	3,798
4Q	2,362	2,242	3,987	4,182	3,484	3,793
'20.1Q	2,347	2,241	3,999	4,191	3,470	3,781
2Q	2,383	2,272	4,050	4,258	3,516	3,811
3Q	2,378	2,283	4,070	4,288	3,522	3,822
4Q	2,367	2,286	4,076	4,308	3,522	3,817
'21.1Q	2,356	2,282	4,091	4,322	3,527	3,813
2Q	2,365	2,313	4,142	4,385	3,597	3,863
3Q	2,379	2,335	4,162	4,410	3,616	3,875
4Q	2,372	2,343	4,173	4,432	3,609	3,874
'22.1Q	2,360	2,342	4,178	4,445	3,609	3,878

자료 : KCB 신용정보 자료

주 : 5세단위 정보를 연령구간별로 재분류함.

(월소득 구간별 개인사업자 비중)

(단위 : %)

	2백만원 이하	2백- 3백만원 이하	3백- 4백만원 이하	4백- 5백만원 이하	5백- 6백만원 이하	6백- 7백만원 이하	7백- 8백만원 이하	8백- 9백만원 이하	9백-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16.1Q	18.1	48.6	19.5	6.1	2.5	1.3	0.8	0.6	0.4	2.0
2Q	18.5	47.9	19.6	6.1	2.6	1.4	0.8	0.6	0.4	2.0
3Q	18.2	47.8	19.8	6.3	2.6	1.4	0.9	0.6	0.4	2.0
4Q	18.1	47.4	20.0	6.4	2.6	1.5	0.9	0.7	0.4	2.0
'17.1Q	18.0	46.7	20.4	6.6	2.7	1.5	0.9	0.7	0.4	2.1
2Q	17.6	46.5	20.6	6.8	2.8	1.6	0.9	0.7	0.4	2.1
3Q	17.6	46.3	20.7	6.9	2.8	1.6	0.9	0.6	0.4	2.1
4Q	17.9	45.9	20.6	6.9	2.8	1.6	1.0	0.7	0.4	2.1
'18.1Q	16.4	47.0	20.8	7.0	2.9	1.7	1.0	0.6	0.4	2.2
2Q	16.7	46.6	20.7	7.1	2.9	1.7	1.0	0.7	0.4	2.2
3Q	17.0	46.4	20.7	7.0	2.9	1.6	1.0	0.7	0.4	2.2
4Q	16.0	46.7	21.0	7.4	3.0	1.6	1.0	0.7	0.4	2.3
'19.1Q	11.9	41.6	25.7	9.9	4.1	2.0	1.1	0.7	0.5	2.5
2Q	11.8	40.9	25.9	10.2	4.2	2.0	1.2	0.7	0.5	2.6
3Q	7.2	43.0	27.3	10.8	4.5	2.1	1.2	0.7	0.5	2.6
4Q	7.3	42.9	27.2	10.8	4.5	2.2	1.2	0.8	0.5	2.6
'20.1Q	7.2	42.8	27.3	11.0	4.5	2.2	1.2	0.7	0.5	2.6
2Q	6.5	41.1	28.3	11.8	4.9	2.4	1.3	0.8	0.5	2.5
3Q	6.4	40.8	28.5	11.8	5.0	2.4	1.3	0.8	0.5	2.5
4Q	6.4	40.5	28.5	12.0	5.0	2.5	1.3	0.8	0.5	2.5
'21.1Q	6.4	40.5	28.3	12.2	5.0	2.5	1.3	0.8	0.5	2.5
2Q	6.1	39.5	28.6	12.5	5.3	2.6	1.4	0.9	0.6	2.6
3Q	5.9	39.2	28.6	12.7	5.3	2.6	1.5	0.9	0.6	2.7
4Q	5.5	38.8	28.9	12.9	5.5	2.7	1.5	0.9	0.6	2.6
'22.1Q	5.4	38.6	29.0	13.2	5.5	2.8	1.5	0.9	0.6	2.6

자료 : KCB 신용정보 자료(개인사업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 현황)

(단위 : 명, %)

	개인 사업자	증감률	미보유	증감률	보유	증감률	신규 대출자	증감률
'16.1Q	92,116		15,455		76,661		17,363	
2Q	95,402		15,622		79,780		17,539	
3Q	96,606		14,896		81,710		17,634	
4Q	98,118		14,255		83,863		18,317	
'17.1Q	99,934	8.5	13,571	-12.2	86,363	12.7	19,571	12.7
2Q	101,696	6.6	12,938	-17.2	88,758	11.3	18,430	5.1
3Q	103,025	6.6	12,156	-18.4	90,869	11.2	19,327	9.6
4Q	105,049	7.1	11,992	-15.9	93,057	11.0	17,687	-3.4
'18.1Q	105,434	5.5	10,739	-20.9	94,695	9.6	21,256	8.6
2Q	106,579	4.8	9,958	-23.0	96,621	8.9	20,874	13.3
3Q	107,393	4.2	8,962	-26.3	98,431	8.3	19,109	-1.1
4Q	124,392	18.4	21,524	79.5	102,868	10.5	19,310	9.2
'19.1Q	126,660	20.1	21,813	103.1	104,847	10.7	21,277	0.1
2Q	132,732	24.5	25,753	158.6	106,979	10.7	20,237	-3.1
3Q	136,184	26.8	26,623	197.1	109,561	11.3	20,685	8.2
4Q	137,984	10.9	27,649	28.5	110,335	7.3	21,226	9.9
'20.1Q	140,185	10.7	28,792	32.0	111,393	6.2	23,776	11.7
2Q	144,044	8.5	31,862	23.7	112,182	4.9	20,139	-0.5
3Q	147,183	8.1	33,074	24.2	114,109	4.2	20,673	-0.1
4Q	148,536	7.6	33,581	21.5	114,955	4.2	21,990	3.6
'21.1Q	151,736	8.2	35,575	23.6	116,161	4.3	22,549	-5.2
2Q	153,651	6.7	34,464	8.2	119,187	6.2	22,609	12.3
3Q	157,899	7.3	36,745	11.1	121,154	6.2	20,750	0.4
4Q	159,888	7.6	37,229	10.9	122,659	6.7	18,280	-16.9
'22.1Q	164,841	8.6	40,641	14.2	124,200	6.9	17,956	-20.4

자료 : KCB 신용정보 자료(개인사업자 기준)

(금융권별)

(단위 : 명, %)

	대출보유자						신규대출자					
	은행권	증감률	비은행권	증감률	중복보유	증감률	은행권	증감률	비은행권	증감률	중복보유	증감률
'16.1Q	50,561		51,404		25,304		5,657		12,404		698	
2Q	52,653		53,501		26,374		5,553		12,645		659	
3Q	53,889		54,940		27,119		5,371		12,933		670	
4Q	55,062		56,640		27,839		5,350		13,665		698	
'17.1Q	56,788	12.3	58,561	13.9	28,998	14.6	6,172	9.1	14,154	14.1	755	8.2
2Q	58,346	10.8	60,333	12.8	29,932	13.5	5,513	-0.7	13,572	7.3	655	-0.6
3Q	59,730	10.8	61,781	12.5	30,653	13.0	5,907	10.0	14,230	10.0	810	20.9
4Q	61,298	11.3	63,105	11.4	31,357	12.6	5,114	-4.4	13,187	-3.5	614	-12.0
'18.1Q	62,424	9.9	64,302	9.8	32,041	10.5	6,731	9.1	15,425	9.0	900	19.2
2Q	63,897	9.5	65,422	8.4	32,708	9.3	6,479	17.5	15,215	12.1	820	25.2
3Q	65,308	9.3	66,474	7.6	33,360	8.8	5,445	-7.8	14,387	1.1	723	-10.7
4Q	68,368	11.5	69,323	9.9	34,835	11.1	5,336	4.3	14,651	11.1	677	10.3
'19.1Q	69,629	11.5	70,493	9.6	35,287	10.1	6,579	-2.3	15,421	0.0	723	-19.7
2Q	71,301	11.6	71,515	9.3	35,849	9.6	6,016	-7.1	14,950	-1.7	729	-11.1
3Q	73,020	11.8	73,200	10.1	36,671	9.9	5,917	8.7	15,433	7.3	665	-8.0
4Q	73,710	7.8	73,415	5.9	36,798	5.6	6,073	13.8	15,871	8.3	718	6.1
'20.1Q	74,765	7.4	73,761	4.6	37,140	5.3	8,526	29.6	16,230	5.2	980	35.5
2Q	75,282	5.6	73,566	2.9	36,672	2.3	6,783	12.7	14,091	-5.7	735	0.8

3Q	76,648	5.0	74,752	2.1	37,296	1.7	6,023	1.8	15,340	-0.6	690	3.8
4Q	77,405	5.0	74,706	1.8	37,161	1.0	6,305	3.8	16,458	3.7	773	7.7
'21.1Q	77,187	3.2	75,685	2.6	36,714	-1.1	7,729	-9.3	15,668	-3.5	848	-13.5
2Q	79,220	5.2	77,552	5.4	37,590	2.5	6,789	0.1	16,678	18.4	858	16.7
3Q	80,625	5.2	78,799	5.4	38,275	2.6	6,134	1.8	15,351	0.1	735	6.5
4Q	81,831	5.7	79,662	6.6	38,840	4.5	5,283	-16.2	13,646	-17.1	649	-16.0
'22.1Q	82,921	7.4	80,402	6.2	39,130	6.6	5,232	-32.3	13,402	-14.5	678	-20.0

자료 : KCB 신용정보 자료(개인사업자 기준)

(대출유형별)

(단위 : 명)

	기존대출자						신규대출자	
	신용	주택담보	카드론	한도대출	정책자금	예적금유가담보	신용	주택담보
'16.1Q	55,977	28,671	16,234	26,279	5,527	3,465	11,134	2,106
2Q	58,324	29,842	16,871	27,163	5,877	3,584	11,508	2,179
3Q	59,850	30,478	17,340	27,688	6,146	3,602	11,883	2,341
4Q	61,744	31,101	17,905	27,717	6,262	3,608	12,362	2,381
'17.1Q	63,829	31,962	18,565	28,599	6,637	3,609	12,912	1,900
2Q	65,845	32,903	19,185	29,053	6,918	3,630	12,649	2,096
3Q	67,667	33,437	19,765	29,510	7,226	3,666	13,293	2,122
4Q	69,352	34,228	20,027	30,077	7,467	3,680	12,300	1,889
'18.1Q	70,752	34,813	20,713	30,853	7,819	3,622	14,473	1,960
2Q	72,311	35,636	21,202	31,317	7,967	3,567	14,330	2,262
3Q	73,572	36,415	21,631	31,454	8,222	3,620	13,162	1,827
4Q	76,335	38,115	22,327	32,445	8,442	3,815	13,388	1,708
'19.1Q	77,963	38,632	22,829	33,171	8,752	3,832	14,486	1,643
2Q	79,068	39,217	23,064	33,382	8,899	3,829	13,898	1,741
3Q	80,934	40,171	23,374	34,385	9,051	3,911	14,383	2,020
4Q	81,734	38,936	23,365	33,603	9,187	3,872	14,625	2,297
'20.1Q	82,385	38,821	23,493	33,836	9,541	3,810	15,351	2,549
2Q	82,284	38,985	21,961	32,544	9,605	3,708	12,683	2,107
3Q	84,089	39,724	22,367	32,964	9,563	3,845	14,688	1,950
4Q	83,976	39,945	22,803	33,072	9,377	3,861	15,300	2,067
'21.1Q	85,407	40,550	23,093	33,426	5,767	3,953	14,746	2,013
2Q	87,734	41,132	23,695	34,531	6,032	4,164	15,206	1,907
3Q	89,312	41,457	24,108	34,873	6,146	4,290	14,343	1,704
4Q	90,256	41,619	23,796	34,622	6,231	4,529	12,471	1,278
'22.1Q	91,167	41,863	23,464	34,820	5,020	4,660	12,742	1,228

자료 : KCB 신용정보 자료(개인사업자 기준)

(연령대별 대출보유자 및 1인당 평균 대출잔액)

(단위 : 명, 천원, %)

	18-29세			30-59세			60세 이상		
	보유자	평균 대출잔액	증감률	보유자	평균 대출잔액	증감률	보유자	평균 대출잔액	증감률
'16.1Q	1,666	56,904		64,410	120,365		10,585	160,736	
2Q	1,820	56,508		66,812	122,289		11,148	164,151	
3Q	1,892	57,369		68,127	124,641		11,691	168,258	
4Q	1,991	60,358		69,576	126,103		12,296	168,847	
'17.1Q	2,057	60,784	6.8	71,319	127,098	5.6	12,987	168,607	4.9
2Q	2,216	63,809	12.9	72,904	128,149	4.8	13,638	166,973	1.7
3Q	2,277	63,084	10.0	74,235	129,813	4.2	14,357	168,488	0.1
4Q	2,403	62,395	3.4	75,638	129,972	3.1	15,016	169,887	0.6
'18.1Q	2,463	61,004	0.4	76,544	129,443	1.8	15,688	168,285	-0.2
2Q	2,625	59,506	-6.7	77,660	130,183	1.6	16,336	167,565	0.4
3Q	2,714	60,914	-3.4	78,633	131,673	1.4	17,084	166,338	-1.3
4Q	2,821	59,861	-4.1	81,833	131,608	1.3	18,214	172,635	1.6
'19.1Q	2,806	57,839	-5.2	82,848	130,469	0.8	19,193	171,166	1.7
2Q	2,852	58,725	-1.3	84,324	130,709	0.4	19,803	173,604	3.6
3Q	3,008	58,638	-3.7	85,829	130,151	-1.2	20,724	173,677	4.4
4Q	3,072	54,946	-8.2	85,713	123,751	-6.0	21,550	164,697	-4.6
'20.1Q	3,109	55,327	-4.3	85,704	122,805	-5.9	22,580	161,904	-5.4
2Q	3,165	56,477	-3.8	85,600	123,377	-5.6	23,417	159,163	-8.3
3Q	3,255	57,918	-1.2	86,402	123,263	-5.3	24,452	157,220	-9.5
4Q	3,339	57,876	5.3	86,284	123,637	-0.1	25,332	156,878	-4.7
'21.1Q	3,365	56,995	3.0	86,324	123,557	0.6	26,472	154,512	-4.6
2Q	3,506	59,654	5.6	87,817	123,933	0.5	27,864	154,305	-3.1
3Q	3,629	58,805	1.5	88,663	124,451	1.0	28,862	153,216	-2.5
4Q	3,660	58,630	1.3	89,460	124,365	0.6	29,539	153,115	-2.4
'22.1Q	3,694	58,545	2.7	89,926	123,129	-0.3	30,580	151,993	-1.6

자료 : KCB 신용정보 자료(개인사업자 기준)

(금융권 및 대출 유형별 1인당 평균 대출잔액)

(단위 : 천원, %)

	평균대출잔액													
			은행권		비은행권		신용		주택담보		카드론		한도대출	
'16.1Q	124,560		129,093		62,015		25,180		126,559		9,009		39,110	
2Q	126,638		131,548		62,835		25,545		127,485		9,065		39,818	
3Q	129,324		132,972		65,294		26,115		131,703		9,071		39,948	
4Q	130,809		135,119		66,001		26,700		132,492		9,102		42,125	
'17.1Q	131,761	5.8	134,648	4.3	67,083	8.2	26,740	6.2	135,313	6.9	9,257	2.8	41,333	5.7
2Q	132,508	4.6	133,986	1.9	68,603	9.2	26,966	5.6	136,517	7.1	9,364	3.3	40,971	2.9
3Q	134,252	3.8	133,765	0.6	71,578	9.6	27,244	4.3	139,474	5.9	9,442	4.1	40,644	1.7
4Q	134,667	2.9	134,082	-0.8	71,696	8.6	27,412	2.7	140,492	6.0	9,438	3.7	41,515	-1.4
'18.1Q	134,098	1.8	131,766	-2.1	72,589	8.2	27,883	4.3	140,706	4.0	9,933	7.3	40,324	-2.4
2Q	134,583	1.6	131,683	-1.7	73,152	6.6	28,116	4.3	141,171	3.4	10,081	7.7	40,754	-0.5
3Q	135,738	1.1	131,859	-1.4	74,098	3.5	28,051	3.0	142,222	2.0	10,023	6.2	41,376	1.8
4Q	136,905	1.7	131,932	-1.6	75,698	5.6	27,041	-1.4	143,403	2.1	9,922	5.1	42,175	1.6
'19.1Q	135,975	1.4	130,506	-1.0	75,884	4.5	26,746	-4.1	142,956	1.6	10,106	1.7	40,948	1.5
2Q	136,730	1.6	130,178	-1.1	77,273	5.6	26,609	-5.4	145,038	2.7	10,197	1.1	40,492	-0.6
3Q	136,421	0.5	129,429	-1.8	77,476	4.6	26,568	-5.3	144,067	1.3	10,340	3.2	40,786	-1.4
4Q	129,833	-5.2	130,625	-1.0	66,958	-11.5	26,639	-1.5	132,858	-7.4	10,515	6.0	42,168	0.0
'20.1Q	128,847	-5.2	129,610	-0.7	66,310	-12.6	26,664	-0.3	131,710	-7.9	11,027	9.1	41,371	1.0

2Q	128,959	-5.7	130,136	0.0	67,125	-13.1	26,558	-0.2	131,959	-9.0	10,840	6.3	40,841	0.9
3Q	128,675	-5.7	129,316	-0.1	67,470	-12.9	27,241	2.5	131,462	-8.7	11,381	10.1	40,864	0.2
4Q	129,052	-0.6	129,651	-0.7	67,839	1.3	27,710	4.0	130,727	-1.6	11,742	11.7	42,178	0.0
'21.1Q	128,683	-0.1	130,119	0.4	68,474	3.3	27,804	4.3	130,102	-1.2	12,066	9.4	41,598	0.5
2Q	129,143	0.1	131,120	0.8	68,307	1.8	28,267	6.4	129,971	-1.5	12,426	14.6	41,435	1.5
3Q	129,337	0.5	130,931	1.2	68,502	1.5	28,465	4.5	130,089	-1.0	12,536	10.1	40,999	0.3
4Q	129,327	0.2	130,923	1.0	68,436	0.9	28,523	2.9	131,147	0.3	12,265	4.4	42,044	-0.3
'22.1Q	128,315	-0.3	130,479	0.3	67,618	-1.3	28,470	2.4	131,503	1.1	12,321	2.1	41,539	-0.1

자료 : KCB 신용정보 자료(개인사업자 기준)

(신규대출자 및 연체자 현황)

(단위 : 명, %)

	신규대출자수	증감률		장기연체자	증감률	단기연체자	증감률
16.3월	11,134		'16.1Q	589		1,909	
6월	11,508		2Q	584		1,711	
9월	11,883		3Q	633		1,908	
12월	12,362		4Q	692		2,223	
17.3월	12,912	6.8	'17.1Q	682	6.8	1,900	6.8
6월	12,649	12.9	2Q	766	12.9	1,953	12.9
9월	13,293	10.0	3Q	793	10.0	2,392	10.0
12월	12,300	3.4	4Q	825	3.4	2,559	3.4
18.3월	14,473	0.4	'18.1Q	859	0.4	2,726	0.4
6월	14,330	-6.7	2Q	930	-6.7	3,013	-6.7
9월	13,162	-3.4	3Q	1,036	-3.4	2,586	-3.4
12월	13,388	-4.1	4Q	1,131	-4.1	3,073	-4.1
19.3월	14,486	-5.2	'19.1Q	1,147	-5.2	3,373	-5.2
6월	13,898	-1.3	2Q	1,209	-1.3	3,336	-1.3
9월	14,383	-3.7	3Q	1,194	-3.7	3,236	-3.7
12월	14,625	-8.2	4Q	1,170	-8.2	2,997	-8.2
20.3월	15,351	-4.3	'20.1Q	1,156	-4.3	3,049	-4.3
6월	12,683	-3.8	2Q	1,113	-3.8	2,528	-3.8
9월	14,688	-1.2	3Q	1,006	-1.2	2,191	-1.2
12월	15,300	5.3	4Q	968	5.3	1,864	5.3
21.3월	14,746	3.0	'21.1Q	983	3.0	2,066	3.0
6월	15,206	5.6	2Q	966	5.6	2,054	5.6
9월	14,343	1.5	3Q	956	1.5	2,111	1.5
12월	12,471	1.3	4Q	958	1.3	1,918	1.3
22.3월	12,742	2.7	'22.1Q	954	2.7	2,077	2.7

자료 : KCB 신용정보 자료(개인사업자 기준)

주 : 단기는 5영업일, 10만원 이상 연체자수(대출 혹은 카드), 장기는 90일 이상 연체자수